

KTX

바로 지금, 여행

강진



미색 강진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02

맛과 멋을 빛는 고장, 강진 | 서해금빛열차 타고 아이와 군산 여행 | 따스한 휴식, 타이 방콕과 끄라비



ARC'TERYX

arcteryx.co.kr



2023.02



012

우연한 발견

달력을 보면서 쉬는 날을 헤아리다가, 대한민국 공휴일의 역사를 살폈다.

014

잡학 사전

#오늘하루운동 바람이 분다. 어떤 길 해 볼까? 몇 가지 운동의 기원을 찾았다.

018

주방 속 여행

정교한 작업으로 예술 작품 같은 디저트를 만드는 성현아 셰프를 만났다.

020

맛집 탐방

마곡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강서구에서 입소문 제대로 난 세계 음식을 맛봤다.

048

이 계절 이 여행

대전 테미오래와 상소동 산림욕장을 방문해 시간이 쌓은 풍경 속을 거닐었다.

056

기차 타고

서해금빛열차 차창에 비치는 풍경과 전북 군산의 풍경을 아이와 함께 바라봤다.

070

먼 나라 여행

타이의 따뜻한 겨울을 음미하며 도시와 자연 모두를 온전하게 누렸다.

076

위스키 인사이트

타이완이 자랑하는 카발란은 숙성 기술 혁신으로 위스키의 새 길을 열었다.



KORAIL INFORMATION

090

한국철도 소식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0

열차 이용 안내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https://linktr.ee/travellounge_d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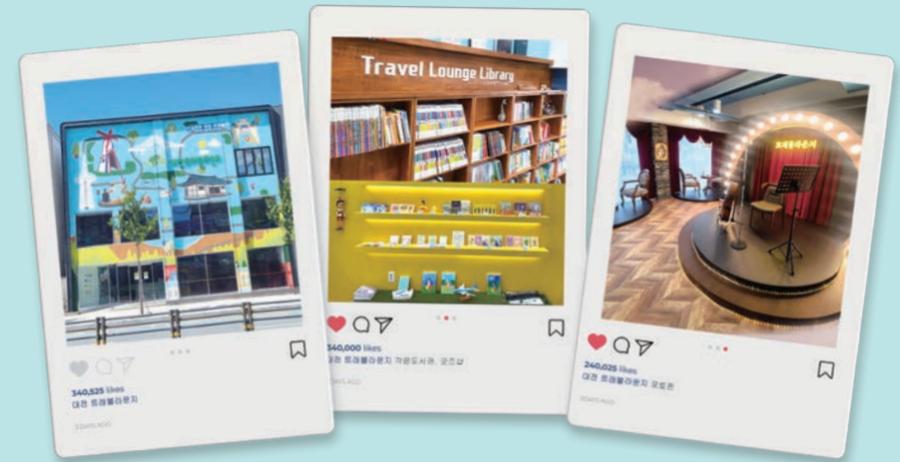
행복한 여행자를 위한 관광특화공간

관광안내, 체험 프로그램, 투어 해설 등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

대전역에서 목적교 방향으로 도보 4분거리

대전 트래블라운지

관광안내소, 작은도서관, 캐리어보관함, 회의실 등 편의시설과 여행의 추억을 남길 포토존과 대전굿즈샵 등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간 리뉴얼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니,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하여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정보

- 문화관광해설사와 원도심동행투어 / 무료(3코스)
- 옛날 교복 및 개화기 의상입고 추억여행 / 실내 2,000원 실외 7,000원
- 문화콘서트 및 콘테스트 / 매월(수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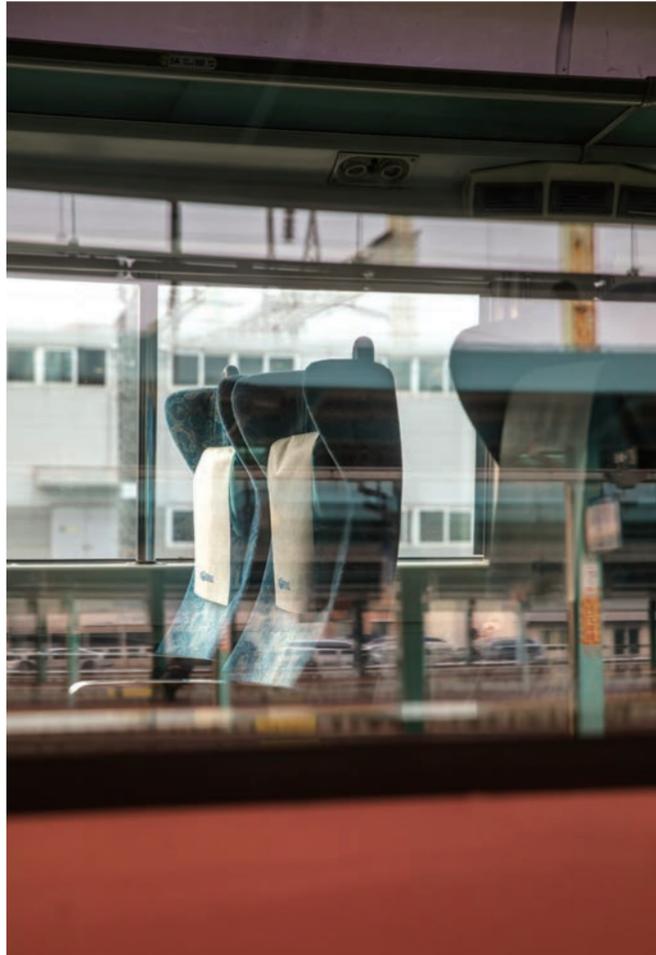
- 머그컵 만들기 / 5,000원~6,000원
-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 5,000원~6,000원
- 포토존 사진찍고 인화하기 / 1인 1매 인화(무료)
- 그림톡&마그넷 만들기 / 2,000원~2,500원
- 바람개비, 관광엽서 채색, 보드게임 등 / 무료

이용문의 : 042-226-841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7-1(중동)

들어가는 글



기차를 타서 만납니다. 차창 밖 자연을 감상하고,
도시 풍경을 살피고, 무언가 읽거나 눈을 감아 휴식하지요.
그렇게 기차 좌석에서 우리를 스친 만남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두 만남이었어요. 자연이 매일 변화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글이라도 내일은 오늘과 다른 글입니다.
나 역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문장이 차창 밖
눈 덮인 들판처럼 하얗게 어려 가던 마주 닿음의 따듯한 순간.
서해금빛열차가 출발하려 합니다.
오늘 저 좌석에서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될까요?
기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TX매거진> 부편집장 김규보

KTX 바로 지금, 여행
FEBRUARY 2023

2023년 2월호 제20권 제2호 통권(제224호)
2023년 2월 1일 발행

발행인 나희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변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부장 오길섭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기원

제3회
부산
희망드림
빛 축제

| 점등기간 | 22. 12. 5.(월) - 23. 2. 28.(화)

| 장 소 | 부산시민공원 남1문 - 북문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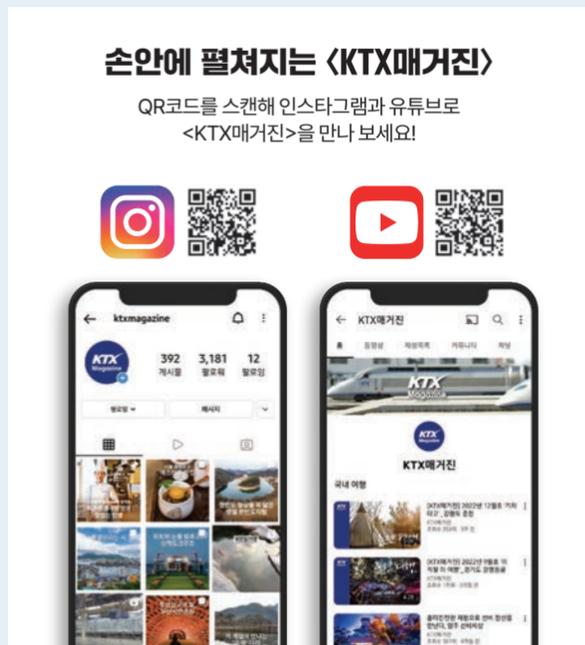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시의 정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전시

Poetic Paradise

리밍웨이 and 정지아
 Lee Ming Wei and Jeong Jia
 그리고

임흥순 and 임철우
 IM Heung-soon and Lim Chul Woo
 그리고

안유리 and 고정희
 Yuri An and Goh Jung Hee,
 구리하라 사다코,
 마야 안젤루,
 비스와바 씬보르스카
 Wisława Szymborska

이매리 and 에즈라 파운드
 Maelee Lee and Ezra Pound
 그리고

아티스트 토크 Artist Talk

리밍웨이 x 정지아(소설가)

2023. 2. 22.(수)

2023. 2. 21. - 6. 4.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인도 여행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 뉴델리, 바라나시, 자이푸르, 스리나가르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북쪽 도시라는 것이다. 남쪽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뭍바이가 있지만, 거기까지. 한국인이 친숙하게 여기는 여행지는 거의 북쪽에 몰렸고, 범위를 확장해 본들 가장자리에 뭍바이가 놓일 가능성이 크다. 지도를 살핀다. 뭍바이와 반도 남단 사이에 광활한 공간이 보인다. 지구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놓쳐 왔다. 아래로 시선을 옮기자 데칸고원에 지명 하나가 나타난다. 통계마다 다르다 해도 인구가 최소 1300만 명인 거대 도시, 자국 전체 IT 수출량의 38퍼센트를 차지하는 첨단 도시, 술한 공원이 산재한 정원의 도시, 그래서 인도인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선망의 도시, 벵갈루루.

오색으로 빛나는 인도 여행 벵갈루루

술한 유적지와 마천루가 공존하는 벵갈루루는 남인도의 보석이다.

IT 산업 본거지답게 유행을 선도하고 즐기는 이가 가득한 벵갈루루. 아시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비그 브루스키(Byg Brewski)를 비롯해 크고 작은 브루어리가 넘칠 만큼 많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다. 특히 규모는 작되 개성이 뚜렷한 마이크로 브루어리의 성지로 일컬어진다.



© sevenriversbrewing



Bengaluru



벵갈루루는 6000여 년 전 인간이 정착한 이래 여러 왕국과 역사를 함께했다. 벵갈루루 궁전, 티푸 술탄의 여름 궁전, 술탄이 지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랄바그 식물원이 그 역사를 증명한다. 쿠본 파크 같은 공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유적지가 많아 여행이 즐거운 벵갈루루는 현재 남인도 메트로폴리시이기도 하다. 1791년 영국 침공을 계기로 양국 사람에게 주목을 받아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이미 100만 명 가깝던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사이에 마천루가 하늘을 수놓은 IT 수도, 쇼핑몰이 밀집한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더했다. 국립 현대미술관이 들어선 2000년대부터 갤러리가 속속 건립된 데다, 인도 아트 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열어 문화 예술을 만끽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 치안이 좋다는 점 또한 반가운 소식이다. 다시 인도 지도를 살핀다. 이제는 먼저 남쪽으로 향한 시선이 데칸고원 산지의 지명 하나에 쏠린다. 벵갈루루. 전통은 전통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생생하며 동시에 조화로운 그곳.

벵갈루루의 문화 예술 여행지가 또 추가된다. 2월 18일 오픈 예정인 미술&사진 미술관(MAP)은 도심의 박물관 구역에서도 중심에 들어섰다. 인도 최고 미술 수집가 아비셰크 포다르와 뜻 있는 이들이 기증한 인도 미술 작품, 발리우드 등 대중 예술 자료 총 2만여 점을 차근차근 선보인다.



© 2023 Map-India

홀리데이 인 대한민국

2023년 새해 첫날과 설날은 공휴일이자 일요일이다. 달력의 공간에 머리를 쥐어뜯다가, 대한민국 공휴일의 이모저모를 뜯어보기로 한다.



새해 벽두부터 온라인 게시판과 SNS를 달군 질문이 하나 있다. "1월 2일 정상 출근하나요?" 현실 부정이거나 대체공휴일을 혼동했거나 직장인의 애환이 느껴지는 매한가지다.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일 때 그다음 오는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현재 적용 대상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뿐이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1월 2일에 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날 아침 출근길은 유독 추웠던 것 같다.

쉬는 날만 기다리는 직장인에게 달력의 '빨간 날'을 헤아리는 것만큼 절박한 일이 또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앞서 열거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날, 새해 첫날, 현충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외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 발생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전북 정읍에서는 5·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삼는다. 이날 해당 지역 관공서는 모두 쉬고 학교나 사기업은 휴무를 권고받는다니, 지역민이라면 잠시 일을 멈춘 채 역사를 되새겨야 마땅하다.

헌정 사상 처음 공휴일을 제정한 1949년 이래, 공휴일 관련 규정은 총 열여덟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 모습을 갖췄다. 굵직한 개정 사례 몇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1950년에 UN 창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1956년에 6월 6일을 현충일로 추가 지정한 이유에는 전쟁이란 슬픈 공통점이 있다. 1990년에는 한글날을, 2005년에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삭제한다. 이로써 제헌절은 국경일이 되 쉬지 않는 유일한 날이 되었고, 한글날의 공휴일 지위는 2012년에야 복권된다. 사흘을 내리 쉬던 새해 첫날 연휴는 1989년에 이틀로 줄었으며, 음력

1월 1일만 휴일로 치던 설날은 그제야 사흘간 연휴로 늘어난다. 1895년 음력개척 때 폐지했으나 암암리에 모두가 쇠던 음력 설날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결과다. 1998년에 이르면 새해 첫날 휴일은 하루로 축소된다.

2023년은 설·추석 연휴 기간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토요일과 겹치는 해로, 가뭄 속 단비 같은 대체공휴일이 우리의 벅찬 휴식을 수호한다. 대체 휴무 제도가 한국사에 등장한 시점은 1959년이다. 안타깝게도 '공휴일 중복제'의 존속은 짧았고,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989년 '익일 휴무제'로 부활했지만 산업계 반발로 번번이 폐지됐다. 대체공휴일이 안착한 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신설한 2013년 8월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만 대체공휴일로 적용했기에, 2015년 8월 14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전 국민이 열광할 만한 사건이었다. 통상 임시공휴일은 1949년 7월 5일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일,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 2002년 7월 1일 월드컵 성공 개최 기념일처럼 모두가 기꺼이 울고 웃을 수 있는 날에만 발효해 왔기 때문이다. 그후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2020년 8월 17일 월요일까지 두 차례 임시공휴일을 거치며 대체 휴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1년과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아아, 휴식의 당위를 갖춘 날을 더 발굴할 순 없을까?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관료들은 음력 1일은 물론이고 7일, 15일, 23일과 24절기마다 쉬었다고 한다. 명절 연휴도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다. 설날에 7일, 정월대보름과 단오에는 각각 3일이 휴가로 주어졌다. 심지어 일식과 월식에도 휴식을 취했다. 최근 발표된 OECD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38개 회원국 중 당당히 5위를 차지한 K-노동자에게 더 많은 K-휴식이 필요한 까닭이다. ㉞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브레이크힐스 (2024년 오픈예정)

글로벌 리더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델피노, 소노펠리체 빌리지 델피노, 숲비치 삼척, 숲비치 양양, 숲비치 진도, 소노캄 거제, 소노캄 제주, 소노캄 고양, 소노캄 여수, 소노캄·소노로 델피노, 소노벨·소노로 비발디파크, 소노벨 부산, 소노벨 경주, 소노벨 제주, 소노벨 천안, 소노벨 청송, 소노휴양령

그 운동의 소사

#오늘하루운동 바람이 분다. 내게 맞는 운동은 무엇일까.
올해도 건강하길 기원하며 몇 가지 운동의 기원을 찾아왔다.

필라테스

독일 태생의 요제프는 어려서 병을 달고 살 만큼 허약했다. 건강해지고 싶어 각종 운동을 했고 권투 선수, 헬스 트레이너로 성장했다. 격변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갔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아 포로수용소에 갇혔는데, 좌절하는 대신 좁은 곳에서 수행하는 운동법을 고안했다. 전후에 독일 의사가 보완하고 미국 병원이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한 뼘 공간과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한 운동. 요제프의 성이 바로 필라테스다.



에어로빅

1968년 미국 공군 소속 심장병 전문의 K. H. 쿠퍼가 비행사의 심장·혈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안한 운동을 무용 강사인 재키 소렌슨이 다양한 동작을 더해 1972년 보급하기 시작했다. 운동의 수많은 장점을 덮는 단점,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고 전 세계인에게 흥겨운 음악에 맞춰 숨 가쁘게 움직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태권도와 복싱 동작을 도입한 태보,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재즈 무용과 결합한 재즈로빅 등으로 진화했다.



크로스핏

체조 선수 생활을 한 미국인 그레그 글래스먼은 신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모아 프로그램을 짰다.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심폐지구력, 근력, 민첩성 등을 골고루 단련하는 피트니스계(핏)의 교차(크로스) 훈련 방법. 1995년 개인 체육관을 열고 2000년대 들어 세계에 퍼져 나가더니 고강도 운동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체험자는 말한다. 엄청나게 힘들지만, 내 안에 숨어 있던 식스팩을 발굴해 준다.



택견

1798년 이만영이 쓴 <재물보>에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고구려 벽화에 비슷한 동작이 그려졌으며 시초를 삼국시대로 잡기도 한다. 일제강점기에 탄압을 받아 맥이 끊기다시피 했으나 다행히 전수자가 남아 그를 중심으로 애쓴 끝에 1983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강하지 않은 기합처럼 부드러운 멋과 여유를 자랑하는 운동은 남녀노소 즐기기에 좋은 생활 무예다. 오늘부터 이크, 예크.

그 운동기구의 소사

러닝 머신 19세기 영국 교도소 죄수는 매일 트레드밀에 올랐다. 밀이 원형인 트레드밀에 달린 계단을 밟아 통을 돌렸고, 이 힘으로 곡식을 빻았다. 일명 '고문바퀴'. 죄수들이 이를 악물고 회전시킨 트레드밀이 20세기 들어 러닝 머신으로 재탄생했다. 운동이 필요한 현대인은 자청해서 러닝 머신에 감금... 근육 가지고 출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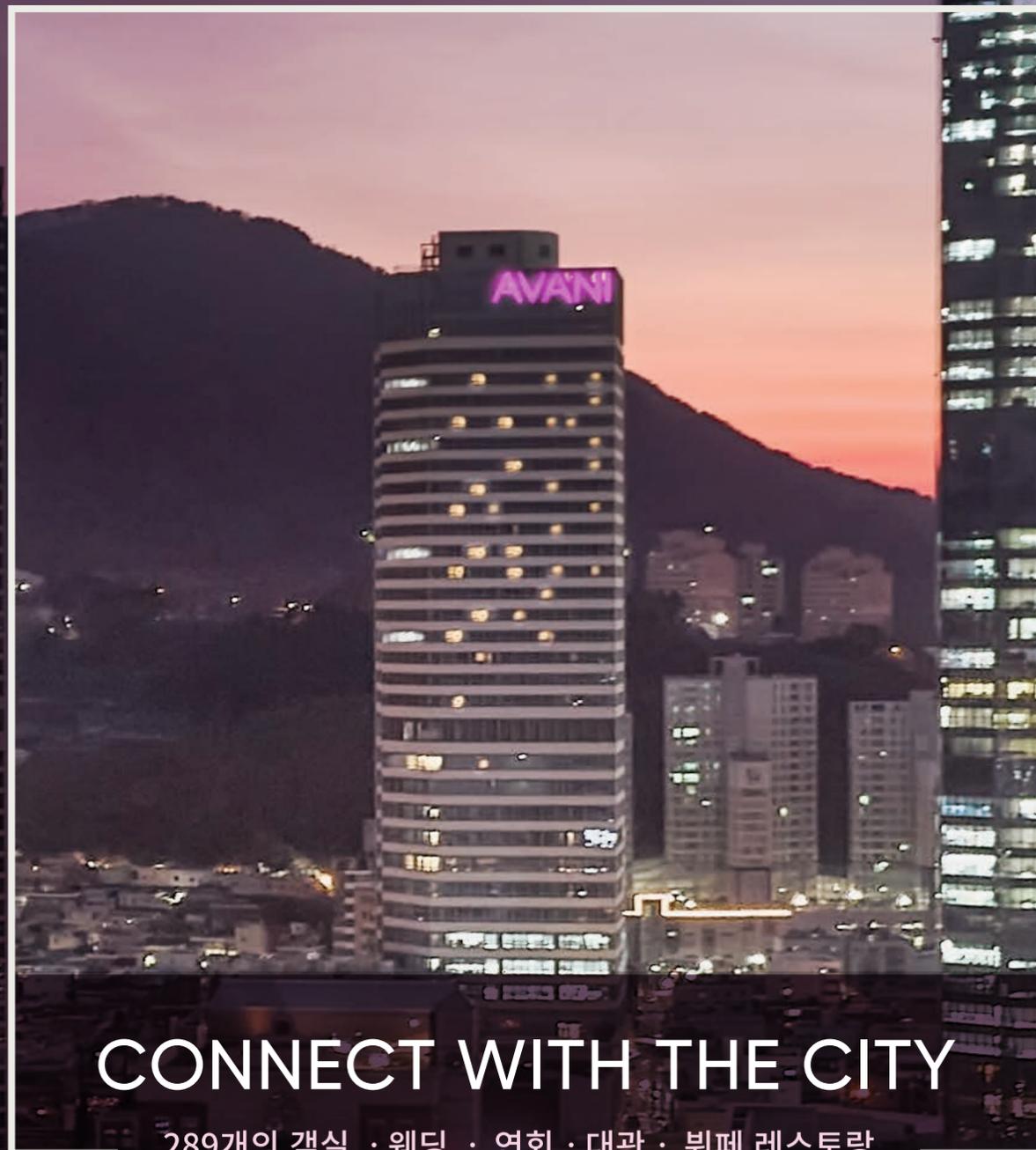
트램펄린 방방 뛰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건 본능인지 예부터 인류는 탄력 있는 물건을 이용해 방방 뛰어 왔다. 이누이트족은 바다코끼리 피부를 펼쳐놓고 뛰었다고. 현대 트램펄린 원형은 1930년대 만들어졌다. 아이들이 즐기는 '방방이' 정도라 여겨선 곤란하다. 2000년 올림픽 종목에 채택된 스포츠로, 기술이 현란하다.

홀라후프 기원전 이집트에서도 후프 같은 물건을 몸에 끼고 돌리면서 놀았다고 추정한다. 오늘날 익숙한 홀라후프는 1958년 미국 장난감 회사가 출시해 15개월 만에 1억 개를 판매한 대히트 상품이다. 홀라후프로 운동이 되느냐 의문을 제기하지만, 뒤편 움직이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돌리길라도 하자.



부산에서 태국을 만나다.

전 세계 23개국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마이너 그룹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바니 센트럴 부산 호텔! 금융도시 부산의 중심이자 영남권 경제의 심장부인 문현 금융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접근성과 편리한 입지를 자랑합니다.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가지의 주·야간 풍경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부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CONNECT WITH THE CITY

289개의 객실 · 웨딩 · 연회 · 대관 · 뷔페 레스토랑
캐주얼 와인 다이닝 · 피트니스 · 스파 테라피

예약 및 문의) 051.791.5800
E-mail) central.busan@avanihotels.com



호텔 더 알아보기 QR



디저트라는 행복

정교한 작업 끝에 성현아 셰프의 손에서 예술 작품 같은 디저트가 탄생한다. 일상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달콤한 행운을 닮았다.

매장 문을 열 때부터 이미 손님은 웃고 있다. 메뉴를 보면서 오늘의 디저트를 숙고하고, 주문 즉시 만들기에 잠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정다운 대화로 채우고, 마침내 눈앞에 메뉴가 등장하면 감탄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예술 작품이나 다름없는 디저트가 눈과 코, 입에 이어 마음까지 행복하게 하는 '소나'. 성현아 셰프는 2013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 잡은 뒤 지금까지 작은 주방에서 '작품 활동' 중이다.

오너 셰프의 길 요리에 늦게 입문했어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0대 후반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지요. 미래가 안 그려지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 길은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 회사 다니면서 제과제빵을 꾸준히 배웠거든요. 요리에 관심도 많았고요. 퇴사하고 준비해서 30대 초반에 유학을 갔고, 돌아오니 어느새 30대 중후반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도 해 보고 식품 관련 기업에 입사하려고도 했는데 역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내가 만들고 싶은, 나만의 디저트를 하자. 가로수길 큰 도로에서도 몇 걸음 들어와야 보이는, 2층의 작은 공간 '소나'의 시작이었지요.

자체로 완성된 요리 유학을 가기로, 디저트를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 입학했어요. 늦은 만큼 제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학생 때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에서 실습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양한 레스토랑을 거쳐 마지막에 프렌치 레스토랑 '조엘 로뷔송' 견습생으로 들어갔어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주방은 신세계였지요. 무려 18코스 요리에 디저트만 두세 코스라니. 극도로 섬세한 작업 끝

에 탄생한 디저트는 모양도 아름답고 맛도 다채로웠어요. 가히 작품이라 할 만했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는지 제가 졸업하기도 전에 제안을 해 주셔서 2년 정도 일했어요. 외양만 예쁘거나 적당히 단, 식사 마무리로서 으레 내는 게 아니라 자체로 훌륭한 요리가 되는 디저트를 경험했어요.

나의 디저트 이런 고백은 우습지만,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솔직히 단맛은 쉽게 질리잖아요. 식재료 각각의 맛을 살려서 단맛과 다른 맛을 조화롭게 하고, 허브로 복합적인 맛의 층을 만들거나 온도를 달리해 색다르게 접근하죠. '오! 초콜릿' 메뉴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래쪽에는 차를 우려 넣은 크렘브뤼레를 깔고 초콜릿 무스,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을 쌓은 다음 맨 위에는 아주 얇은 판 초콜릿을 올려요. 손님이 따뜻한 초콜릿 소스를 부으면 판 초콜릿이 녹으면서 구멍이 뚫리고 내용물이

성현아 셰프가 사랑하는 미식 공간
훌륭한 셰프님이 많아서 저도 늘 배우요. 빵 만드는 아내와 디저트 하는 남편이 운영하는 따팜은 모든 빵과 디저트가 감탄스러워요. 프랑스로 유학 간 한국 여성이 프랑스 남성과 결혼하고 서울 후암동에 연가게랍니다. 장봉뷔르는 꼭 드셔 보세요. 한식을 빼놓을 수 없죠. 서울 메이필드 호텔 내 봉래헌을 오래 지킨 이금희 셰프님은 전통 조리법의 대가세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신선로를 강력 추천합니다.



성현아 미국 요리학교 CIA를 졸업하고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조엘 로뷔송'과 뉴욕의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아라비트'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3년 서울 가로수길에 '소나'를 열고 플레이팅 디저트를 선보여 왔다.

샴페인 슈가볼, 이스파한 서울

슈가볼 안에 색색 꽃잎과 분홍빛 샴페인 거품, 딸기와 딸기 판나코타 등을 넣은 '샴페인 슈가볼'은 영롱한 외양 덕분인지 단시간에 대표 메뉴가 되었어요.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해 주셨고요. 설탕 공예 디저트가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광택을 살리는 데 비해 저는 내용물을 눈으로 먼저 즐기시라고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얇은 설탕 막을 톡 깨뜨려 먹는 퍼포먼스도 재미를 주지요. '이스파한 서울'은 세계적 셰프 피에르 에르메의 장미 향 디저트인 이스파한을 재해석한 메뉴예요. 장미와 리치, 라즈베리를 조합한 이스파한에 딸기 소르베, 자몽 그라니타, 머랭 스틱 등을 더했어요. 달콤함과 상큼한 맛, 다양한 식감의 조화가 매력적입니다.

드러나죠. 층층이 차별되는 식감과 온도의 온갖 초콜릿을 맛보도록 설계한 메뉴예요. 디저트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빨강이라는 색에 수많은 변수가 있듯이 단맛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를 지녔는지 보여드리는 디저트, 여기에 먹는 과정까지 즐거운 디저트를 구상합니다. 물론 예술적으로 예뻐야 하고요.

여전히 공부하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파인다이닝 셰프님들이 낸 책은 구해서 읽어요. 디저트 말고 파인다이닝이요. '지나치게 디저트스럽지 않은 디저트'를 내놓고 싶거든요. 저희 '샴페인 슈가볼' 소스에는 생강과 후추가 들어가고, '레몬'이라는 메뉴에는 새싹 허브를 장식해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상상과 도전을 하는 일이 즐거워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요리를 시작했잖아요. 눈뜨면 출근해 종일 서서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 문 닫는 날에도 클래스 같은 외부 일정으로 쉴 틈이 없거든요. 정말 지치는 순간도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괜찮다,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지치는 순간을 덮어요. 셰프님들 책을 보거나 새 디저트를 구상할 때요. 머릿속에 여러 디저트가 완성돼 있거든요. '소나'를 운영하는 10년 동안 저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믿어요. 첫 마음, 파인다이닝을 방문하지 않아도 파인다이닝급 디저트를 맛있게 해 드리겠다는 포부는 그대로지만요. **ik**



걸어서 세계 음식 속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된다. 마곡동을 중심으로 한 서울 강서구에서 세계 각국 대표 음식을 만난다.

매장 안팎에 비바나폴리가 직접 디자인한 굿즈를 전시한다. 컵, 볼펜 등을 감상하고 마음에 드는 굿즈를 구매하는 일이 즐겁다.



비바나폴리

☞ 비바 클래식 2만 6000원 프리타티네 1만원 빠누조 프로슈토 1만 5000원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76 101호 @_viva_napoli

비바나폴리 바깥에서부터 '현지 식당인가?' 생각이 떠오른다. 당연하다. 지난해 9월 문을 열기 전, 이탈리아 나폴리로 건너가 인테리어를 연구한 덕분이다. 지중해 물빛처럼 파란 매장에 햇살까지 짙하게 비칠 때는, 정말 나폴리 바닷가의 피자 가게이지 싶다. 여기서 기본 좋은 사실. 맛은 더 그렇다. 기왕 가서 인테리어만 살피진 않았겠으니, 정통 이탈리아 남부 음식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나폴리를 대표하는 마르게리타를 비롯해 제주 흑돼지 햄과 달걀을 조합한 비스마르크 등 메뉴판 피자 사진만 봐도 군침이 흐른다. 그중 손수 만든 프로슈토 코트(익힌 햄)를 루콜라에 얹은 비바 클래식 2만 6000원을 주문했다. 주방 화덕에서 참나무를 때 구운 피자가 깊디깊은 맛을 터뜨려 입에서도 감탄이 터진다. 튀긴 부가티니 면에 카르보나라 혹은 바질을 넣은 프리타티네는 나폴리 대표 주전부리다. 면이 사르르 녹고는 뭐라 말해도 부족할 감촉이 입안을 흐드러지게 적신다. 이어 빠누조 프로슈토를 한 입, 구운 피자 도와 프로슈토를 쓴 이 나폴리식 샌드위치를 우물거려다 생각 하나가 떠오른다. '부럽다, 나폴리 사람들!' 하지만 괜찮다. 한국엔 '비바나폴리'가 있다.



TRAVEL TIP

아는 사람은 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엔 고수가 운영하는 식당이 수도무다. 곳곳에 숨은 식당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 데다, 서울식물원이 마곡동 중심에 위치해 어디에서든 조금만 걸어도 숲의 정원을 만난다. 요기하는 것을 넘어 신나게 먹고 즐겁게 산책하기 완벽한 환경인 셈이다.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을 합한 이른바 '보태닉 가든'이다. 무려 50만 4000제곱미터(약 15만 2000평) 면적에 숲은 물론 습지, 호수 등이 있어 두루두루 구경한다.



델리시스 5성급 호텔 출신 셰프가 요리한다. 덧붙여 많은 경우 손님 절반이 인도인일 정도다. 인도 음식에 시금치 소스를 가미한 팔락 파니르 등 커리가 입에 착 달라붙고, 감자를 튀긴 사모사 같은 애피타이저는 하나하나 맛깔나다. 향신료에 하루 넘게 재운 탄두리 치킨도 다른 말이 필요 없다.

☎ 팔락 파니르 1만 2000원 사모사(2개) 5000원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3길 26 3층 📞 @delhi6korea

봉이밥 한국인에게 밥은 삶이고 정이다. 그런 가치를 담겠다는 신념으로 갖은 채소를 한데 모은 텀래기, 코다리 정식 등 다섯 가지 메뉴를 선보인다. 아침마다 그날 사용량만큼 채소를 손질하고, 코다리는 먹기 편하도록 뼈를 따 숙성한다. 양념 역시 맛과 건강을 생각해 직접 배합한다. 건강하게 맛있는 입소문, 그냥 나는 게 아니었다.



☎ 봉이밥 8500원 텀래기(2인분) 2만원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103-104호 📞 @bong2bab



델리시스



봉이밥



치앙마곡



로퍼스

☎ 태국식쌀국수 1만 1000원 찹카파오무쌈 9000원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22 A동 121호 📞 @2022.chiang_magok

☎ 로퍼스 컷렛 버거 7900원 오렌지 비앙코 4800원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6 149호 📞 @loafers_espresso_burger



치앙마곡 반평생 요리만 해 온 대표가 동남아시아 음식을 현지 맛 그대로 내어 놓는다. 타이의 유명 식당에서 전수한 레시피와 타이·베트남에서 엄선해 들여온 식재료로 쌀국수, 찹카파오무쌈 등을 만든다. '내가 힘들수록 손님은 맛있어한다'라는 원칙에 자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기에 동남아시아 음식 맛을 넘치도록 느낄 수 있다.

로퍼스 쇠고기는 없다. 모든 수제 버거 패티에 돼지고기를 쓴다. 지난해 오픈 당시 육질이 고운 돼지고기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 특성을 드러내고자 매일 노력했다. 소스 또한 전부 수제. 뒷다리 고기에 메이플 소스를 곁들인 시그너처 메뉴 로퍼스 컷렛 버거가 그 노력대로 정말 부드럽다. 이 집 커피와 궁합이 환상적이다.



비건 김치와 대체육을 사용한 김치볶음밥

대경농산_비건가든 매콤한 김치 불고기 볶음밥 4.3점

김현정 비건이 뭔지 찾아봤다.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도 소비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 동물권, 환경, 맛있는 음식,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볶음밥 한 입. 고만을 접게 하는 맛이다. 이름과 달리 '불고기'의 존재감이 희미해 아쉽지만. ★★★★★ / **김규보** 매콤하니 먹음직스럽게 피어나는 향을 만끽하며 우물거렸다. 대체육과 비건 김치가 입안에서 리듬을 탔고, 나는 대가의 솜씨를 감상하듯 맛을 즐겼다. 찬사를 보낸다는 의미로 실 틈 없이 먹었다. ★★★★★ / **강은주** 살짝 익은 김치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신기하다. 액정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게 매운맛이 난다. 다만 불고기 만인지는 포장지를 보고 알았다. ★★★★★ / **남혜림** 냄새 맡고 "우아", 음식 빛깔 보고 "우아", 마지막으로 한 입 먹고 "우아!" 진짜 맛있어서 몰래 몇 번 더 먹었습니다. ★★★★★

4.4점 데일리비건 비미트 큐브 떡갈비맛



김현정 이분들 밥 먹고 대체육만 만드셨나 보다. 맛과 식감이 고기나 다름없다. 대체육 특유의 냄새도 상당히 덜하다. 비건을 실천하려는 의욕을 북돋운다. 엄지 척. ★★★★★ / **김규보** 모르고 먹었다면 진짜 고기인 줄 알았을 맛이 입안에서 픽션 사극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나는 전통을 녹이고 기술력을 더한 명품 드라마를 감상하듯 맛을 즐겼다. 재방송을 원한다는 의미로 마구 먹었다. ★★★★★ / **강은주** 요즘 근육이 잘 붙질 않아 간편하게 섭취하는 단백질 원료를 찾던 차, 비미트 큐브를 만났다. 완두콩이 주재료라 든든한 건 물론, 달콤한 간장과 마늘 향이 오롯한 풍미를 완성한다. ★★★★★ / **남혜림** 대체육은 처음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너를 마주한 순간. 콩고기는 특유의 향이 난다는 선배들 말을 듣고 열심히 알아보려 했는데... 다섯 개째 먹어도 왜 안 느껴지죠? 맛있다. 히히. ★★★★★

한 입에 쓸데가 있는 비건 떡갈비

이건 비건입니다

날로 커지는 비건 식품 시장. 다양한 비건 먹거리를 네 명의 에디터가 시식했다.



쌀가루, 감자 전분과 채소로만 맛을 낸 라면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강화섬쌀로 만든 시골쌀라면 4.5점

김현정 강화도 최고! 강화섬쌀 최고! 이 라면 최고! 최고! 라면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라면에 손이 가게 하겠다. 인스턴트식품에서 장인 정신을 느꼈다. ★★★★★ / **김규보** 탱탱한 면발과 웅숭깊은 국물 맛이 입안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인 양 장엄하게 어우러졌다. 나는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교향악단 무대를 감상하듯 맛을 즐겼다. 기립 박수를 친다는 의미로 들입다 먹었다. ★★★★★ / **강은주** 460칼로리. 집에 있는 다른 라면과 비교했을 때 죄책감을 덜 만한 열량은 아니다. 그런데 질감이나 완성도도 여느 라면만큼 짱짱하다. 알근하고 깊은 맛, 내일도 들이켜고 싶다. ★★★★★ / **남혜림** 오, 정말 국물부터 달라요. 끝이 깔끔하다고 해야 할까요.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는 소박한 라면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에게는 면이 좀 찢다는 거예요. 약간 싱겁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

3.4점 베이푸드 비건 새우 맛 튀김



곤약으로 만든 해물 맛 튀김

김현정 비건은 해물도 못 먹는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누군가는 윤리적 이유로 고기에 새우까지 내려놓은 삶을 산다니 숙연해졌다. 새우 맛 튀김이라 쓰고 희망이라 읽는다. 올해는 나도 한 걸음 따라가 봐야지. ★★★★★ / **김규보** 곤약인데 정말 새우를 씹는 느낌이 입안에서 마술 쇼처럼 환상적인 감촉을 선사했다. 나는 지구 최고 마술사의 공연을 감상하듯 맛을 즐겼다. 경탄을 금치 못했다. ★★★★★ / **강은주** 탱글탱글한 질감이 사랑스럽다. 도저히 이걸 곤약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활용법을 검색해 보니 비건 마요네즈를 더해 크림 새우를 만들었다는 간증이 있다. 조만간 시도해야겠다. ★★★★★ / **남혜림** 꼭꼭 씹자 탱글탱글한 것이 새우 살 식감을 흉내 낸 노력이 느껴집니다. 곤약을 넣어 식감을 살리다니, 신기하지만 맛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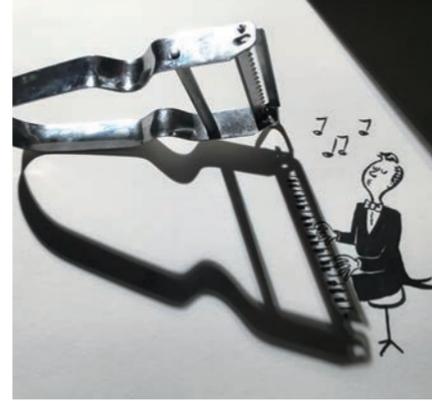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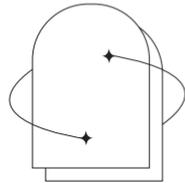
• EXHIBIT •

<올림피아 자그놀리: Life is Color>

창원 01.10~03.12

선명한 색채와 생기 넘치는 라인이 도드라지는 일러스트로 색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은 이탈리아 그래픽 디자이너 올림피아 자그놀리가 한국을 찾았다. 디자인 오브제, 키네틱 조각, 비디오 클립 등 그의 작품 150여 점을 감상한다. 상상 속 인물을 그린 초상화 등과 함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는 모습처럼 일상에서 포착한 순간을 풍부한 색채로 표현했다. 무료 도슨트 프로그램은 물론, 셀로판지로 작품 따라 만들기 같은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인 색의 세계에 푹 빠진다.

장소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 문의 055-714-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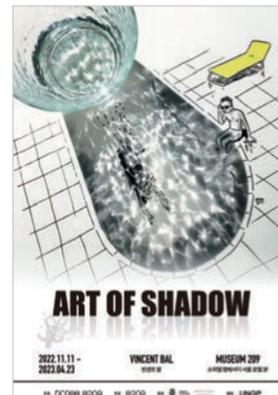
• EXHIBIT •

<빈센트 발: Art of Shadow>

서울 2022.11.11~2023.04.23

사물 그림자에 일러스트를 그려 넣는 독특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영화감독인 벨기에 출신 빈센트 발이 6년간의 작품 활동을 담은 전시를 선보인다. 그림자 일러스트를 '그림자학'이라고 칭하는 그는 자신의 작품이 창작이 아닌 발견의 산물이라 말한다. 유리잔, 포크, 과일 등 평범한 사물의 그림자도 그를 거치면 흥미롭고 재치 있는 작품으로 변모한다. 그림자 일러스트, 15점의 설치 작품 외에 단편영화도 상영한다.

장소 서울 뮤지엄209 문의 02-6953-8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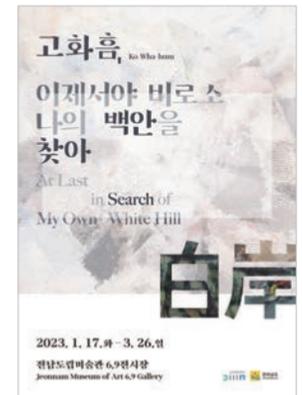
• EXHIB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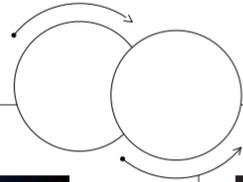
<고화흠, 이제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

광양 01.17~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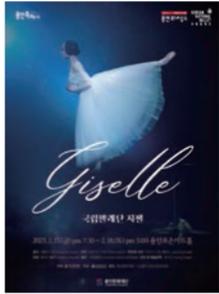
전남 출신 고화흠 작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한다. 전시 제목은 작가의 글에서 비롯했다. '백안(白岸)'은 하얀 언덕이라는 뜻으로, 작가 스스로 창안한 단어다. 전시의 주를 이루는 유화 '백안' 시리즈는 고화흠이 언젠가 도달하고 싶었던 이상향을 그린 것으로, 넘실대는 은백색 물결과 일렁이는 그림자의 서정적인 색채가 특징이다. 수채화, 유화, 자수를 포함해 그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모았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what's up



• SHOW •

<지젤>

● 용인 ● 02.17~18

발레리나 출신 강수진이 예술감독 겸 단장을 맡고 있는 국립발레단이 낭만 발레의 정수 <지젤>을 무대에 올린다.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시인이자 소설가인 테오필 고티에의 극본을 더해 지젤과 알브레히트가 나누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발레로 표현했다.

장소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
문의 031-260-3355



• SHOW •

<투견>

● 대전 ● 02.24~25

제40회 대한민국연극대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도박에 빠져 무너져 가는 주인공의 가족과 주변 군상을 그렸다. 주인공 동만은 일귀 운 축사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거액을 주겠다는 불법 투견 도박단에 축사를 빌려주고, 투견판이 된 축사에서 자신마저 도박에 얽혀 몰락한다.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문의 042-270-8333



© MEDIA&ART © THE ANONYMOUS PROJECT



• EXHIBIT •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우리가 멈춰섰던 순간들>

● 서울 ● 22.11.25~23.04.02

1940~1980년대 전 세계 작자 미상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촬영한 빈티지 컬러 필름 사진을 펼친다. '익명의'라는 뜻의 전시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어노니머스 프로젝트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컬러 필름 슬라이드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등 크고 작은 인생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낸다.

장소 서울 그라운드시소 서촌
문의 1522-1796



• SHOW •

<2023 일소당 음악회>

● 서울 ● 02.02~10

서울 창덕궁 후원 앞에 자리하던 국립국악원. 그 안에서 전통 춤의 풍류를 알린 공연장 일소당을 재현했다. 국악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온 명인들의 이야기와 그 인생이 녹아든 음악을 선보이는 토크 콘서트다. 이동규, 김광숙, 최경만, 김청만 등 네 명의 국악 명인이 참여한다.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문의 02-3210-7001



• FESTIVAL •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 남원 ● 22.12.25~23.02.12

자연 속 겨울 나라에서 계절의 정취를 만끽한다. 이번 축제는 '겨울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의 공감대를 자극한다. 눈썰매 타기, 이글루 체험은 물론 눈 조각품 전시회까지 준비했다. 설경이 장관인 바래봉을 등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장소 전북 남원 바래봉 일원
문의 063-635-0301

남해 서정

남해



언제나 푸르른 남쪽 바다, 경남 남해의 맑고 온화한 정경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 줄 기념품을 그려모았다.

[돌창고] 남해섬에는 기능을 다한 돌창고를 전시장, 카페, 스튜디오로 재생해 운영하는 기획자 그룹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이들은 돌창고라는 이름을 내세워 지역의 이야기가 깃든 출판물, 공예품, 먹거리를 바지런히 모아 소개한다. 문의 dolchanggo.com **1 (남해 유자 종이 비누)** 산뜻하면서도 농밀한 남해 유자 향을 머금은 비누. 사랑스러운 틴 케이스에 담긴 종이 비누는 18그램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편하고, 한 장씩 꺼내 쓰기 좋아 여행이나 캠핑에게 요긴하다. **2 (빼빼기 판나코타)** 빼빼기는 얇게 썬 고구마를 벌레 말려 만드는 경상도 지역 전통 간식이다. 부드럽게 삶은 빼빼기 위에 생크림, 바닐라, 우유를 섞어 올려 이탈리아식 푸딩을 완성했다. 기본 좋은 달콤함이 흐드러진다.

[앵강마켓] 몽돌에 파도가 부딪는 소리가 마치 꾀꼬리 울음 같아서 앵강만이란 이름을 얻은 바다가 있다. 앵강마켓은 바로 그곳에 있다. 투명한 남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식재료와 전통 식품이 정갈한 아름다움을 간직해 채 자리한다. 문의 ainriver.co.kr **3 (해초 샐러드)** 사라진 입맛을 돋울 때다. 식이섬유와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한 미역 줄기, 다시마, 세모가사리, 한천 등 해초를 곱게 말려 포장한 이 해초 샐러드 한 봉지면 식탁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 **4 (앵강마켓 1호 선물 세트)** 남해 즉방렴은 부채꼴의 대나무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전통 방식으로, 500년 역사를 이어왔다. 이렇게 거둔 즉방 멸치와 미역, 다시마를 선물 세트로 꾸렸다. 2022년 남해군 우수 관광 기념품으로 선정됐다.

[초록스토어] 청록색 차양, 크림색 타일, 다갈색 문이 시선을 잡아 끄는 곳. 이름처럼 남해의 싱그러움이 넘실거리는 초록스토어는 일러스트레이터 키미앤일이의 아트워크를 중심으로 디자인 소품을 선보인다. 문의 smartstore.naver.com/chorocstore **5 (남해 한글 에코백)** 한글 자음과 모음이 지닌 형태적 미감을 활용한 에코백이다. 폭이 8센티미터로 넉넉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여행자에게 제격이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끈, 탄탄한 손잡이가 있어 다양하게 연출한다. **6 (치치의남해여행 300조각 퍼즐)** 하얀 새를 쫓아 길을 나선 강아지 치치의 남해 여정을 퍼즐로 완성한다. 각각 300조각으로 이루어진 네 가지 퍼즐을 맞추면서 바다로 나가 놀고, 남해군 군화인 치차꽃 향기를 맡는 치치를 만날 시간이다.



마음으로 가는 길, 산과 나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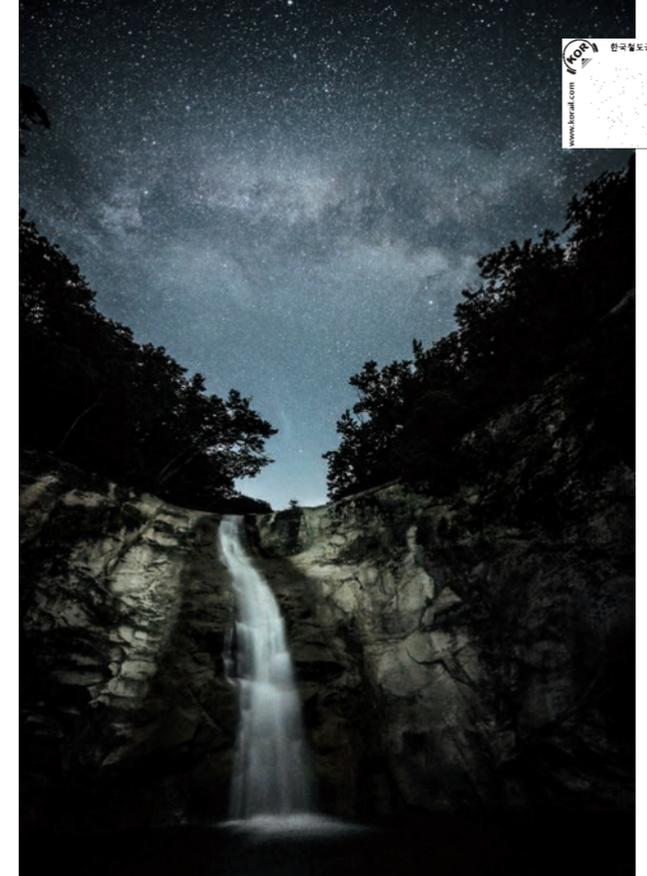
김동진 사진가는 기다린다. 마침내 자신이 산이 될 때까지.

비탈에서 눈 덮인 바위를 만났다. 구름이 자욱해 햇살은 열고 가늘었다. 문득 시선 가운데로 햇살이 들어왔다. 조금 더 밝아진 빛은 바위 뒤에서 광배처럼 번졌다. 눈이 계속 비탈을 덮어 가는 중이었다. 김동진 작가는 보았다. 바위는 산을 오르는 자신이었다. 머릿속 잡념들이 무거울지언정 길을 밟고, 다시 밟아 나아가는 사람의 경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산과 빛의 찰나를 포착한 작품 '자화상'이다.

1923년,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 하느냐는 질문에 조지 말로리는 "그곳에 산이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등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전인미답의 최고봉이 목표이기에 이상과 정신 또한 고도했겠다. 그래서 그 대답은 술한 이유를 잘라 함축한 것이거나, 홀로 간직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인지 모른다. 어떤 생각이었든 그는 언어에 넣기가 불가한 순간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꼭 100년이 지난 오늘도 사람은 산을 오르려 한다. 김동진 작가 역시 매주 20킬로그램에 이르는 짐을 지고 설악산으로 향한다.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어요. 오르는 동안 산에서 나를 보니까요. 내가 거기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산이 나에게 다가오는 과정이죠."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가져 본 적 없어요. 내가 산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산이 나에게 다가오는 과정이죠.”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사진집 <천 개의 마음> <천의 바람>을 펴냈지만 본업은 지금도 대학교 교직원이다. 인연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퀘적이다. 작가는 2009년 무렵 홍보 부서에서 일했다. 직접 자료 사진을 찍기도 하던 당시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었다. 좀처럼 호전되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산이 떠올랐다. “이른 봄날 서울 인왕산에 갔어요. 낮게 깔린 구름과 봉우리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건강을 챙길 겸, 산 사진을 찍어 보자 결정했죠.” 밤에 설악산 천불동 계곡을 산행했다. 아무리 걸어도 비탈이 계속됐다. 힘들어지는 만큼 온갖 감정이 부풀어 커졌다. 후회, 두려움, 슬픔은 천가지 마음으로 변화해 자신을 세차게 두드렸다.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다. 계곡을 지나자 마음이 하나 둘 흩어졌다. 이윽고 먼지를 모두 벗은 맨눈으로 산을 봤다. 능선과 나무가 가슴에 온전하게 깃들었다. 세상은 본디 하얀 것이었다. “이후 거의 매주 설악산을 방문해서 촬영했어요. 그 사진을 모아 2019년에 발간한 책이 <천 개의 마음>이구요. 그날 경험을 통해 사진집 이름을 결정했죠.” 밤이어서 산에는 분명하게 움직임이 존재한다. 주로 야간에 산행하는 작가는 별빛과 은하수, 운무와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관찰하고 기다린다. 바로 지금 풍경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겠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나를 닮은 풍경이 반드시 드



러나기 때문이다. 그마저 정해진 건 아니다. 어제 일상에, 산에 닿는 여정에, 능선을 타는 순간에 스치는 감정이 나와 산의 거리를 벌리고 좁힌다. 그리하여 작가는 기다린다. 어둠에 휩싸인 산을 헤매며 미세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인다. 운무에 젖은 건너편 능선이나 은하수가 가로지르는 밤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작가는 셔터를 누른다. 찰카. 마음이 내는 목소리가 사진 한 장에 담긴다. “열 번 가서 두세 번 제대로 촬영해요. 이거다 싶은 때가 쉽게 오는 게 아니어서요.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작가는 사진 작업을 덜어 내는 일이라고 말한다. 불필요한 피사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앵글 바깥으로 물리치는 작업은 결코 기법이 아니다. 욕심을 확인하고 삶에서 물리쳐야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릴 테니. 설령 그냥 돌아가야 한다면 그는 눈 덮인 비탈의 바위처럼 길을 밟고, 다시 밟아 나아갈 것이다. 인사하고 헤어지려는 참에 작가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번 주말에도 설악산에 갑니다. 폭포가 얼었을 거예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얼음 폭이 넓어지죠.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어 자신을 확장해 가는 밤, 그렇게 마음 하나가 환하고 깊게.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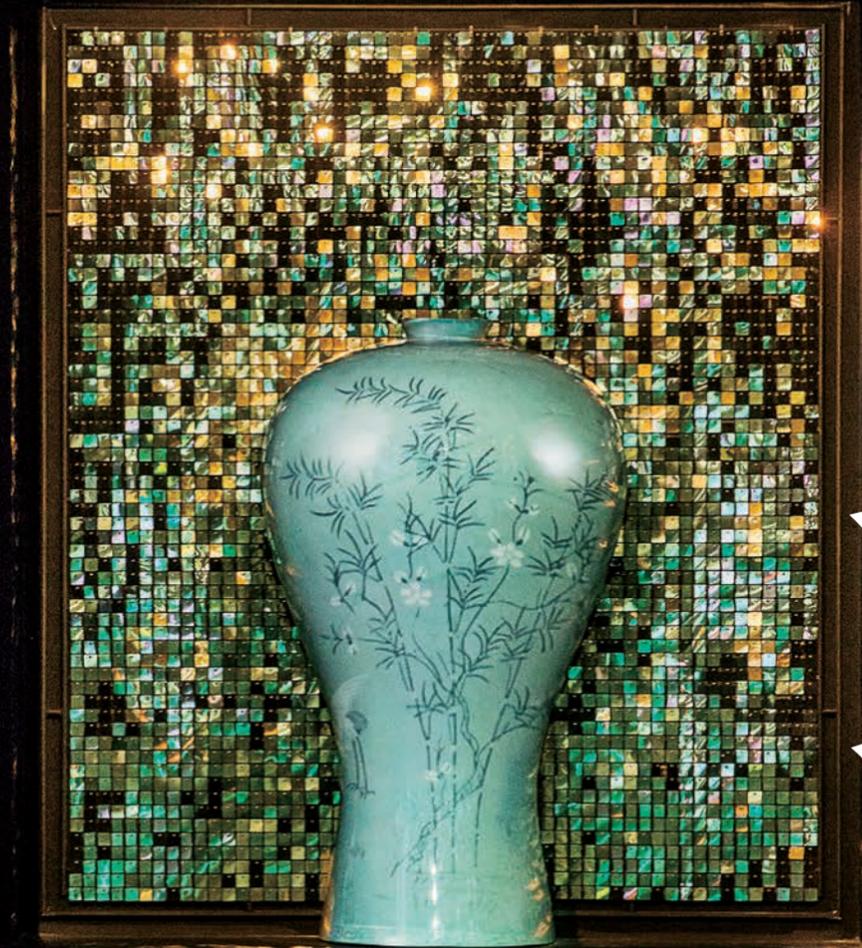
김동진 서울 서강대학교 교직원이며 사진작가로 활동한다. 우연한 계기에 산과 사진의 매력에 빠진 2009년 무렵부터 거의 매주 산을 촬영했다. 2019년 두 번째 개인전을 열고, 같은 해 사진집 <천 개의 마음>을 펴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수년간 작업한 작품 69점을 모아 사진집 <천의 바람>을 발간했다. 끈질기게 탐구하고 진실하게 다가가 포착한 산 사진에 우찬제 문학평론가 글을 붙여 독자를 사색으로 이끈다.



때 이른 봄바람과 담청색 바다가 일렁이는 2월, 강진청자축제가 다정한 초대장을 보내왔다. 고운 청자와 맑은 술과 잘생긴 메주를 빚어 낸 땅, 전남 강진으로 떠나야 할 이유다.



빛는



강진



전망대에 서서 죽도와 구강포,
만덕산과 월출산을 굽어보았다.
이 너그럽고 순전한 능선을
날마다 마주하는 삶이란,
얼마나 행운인가.



눈 녹는 소리였다. 들을 순 없지만 온 감각을 울리는 대지의 노래. 따뜻하고 흐린 겨울날, 우리는 남녘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월출산 자락에 는개를 흠뿌리던 구름은 어느새 농토를 적시기 시작했다. 보리 싹이 가까머리처럼 돌아나던 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밤사이 부쩍 자라/ 들 언덕엔 초록빛이 무색해졌네”라고 읊으며 바라보았을 보리다. 강진만은 너른 보리밭 너머 아물거렸다. 누군가는 저 담청색 바다를 두고 청자의 비색을 닮았다 했다. 어찌면 바다를 연모한 도공이 그 빛을 옮겨 빛은 건 아니었을까, 하고 잠시 상상한다. 때 아닌 봄기운이다.

기다리고 있을 테요, 가우도의 봄을

어떤 해일이나 풍랑도 가우도에 한 번, 죽도에 또 한 번 부딪고 나면 한없이 온순해진다. 편안할 강(康), 나루터 진(津). 강진이 ‘편안한 나루터’라는 뜻을 품게 된 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우도 청자타워 전망대에 서서 죽도와 구강포, 만덕산과 월출산을 굽어보았다. 이 너그럽고 순전한 능선을 날마다 마주하는 삶이란, 얼마나 행운인가. 이곳엔 것처럼 꿈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강진의 여덟 개 섬 중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에는 현재 열네 가구, 30여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다.

이들에게는 생활 터전일 테지만, 가우도는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 1호로 꼽힌 이래 강진의 첫 번째 여행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섬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 앞서 2013년 저두면과 가우도, 가우도에서 도암면을 잇는 연륙교를 놓고 가우도 출렁다리라 이름 붙인 데 이어 섬을 일주하는 함께해(海)길 산책로 텍을 조성했다. 이 고장에서 나고 자란 시인 김영랑의 동상과 대표작 네 편도 나란히 두었다. 야트막한 동산엔 5000여 장의 청자 타일을 붙인 청자타워 전망대를 지어 올렸고, 전망대 6층에서부터 저두 해안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내리달는 집트랙을 설치하기도 했다. 2021년 가을에는 드디어 모노레일이 등장한다. 산 정상까지 연장 264미터의 선

로를 오르는 코스다. 동시에, 이름이 무색하게 튼튼하던 두 연륙교와 달리 판자를 이어 붙여 걸을 때 진폭을 키운 진짜배기 출렁다리가 개통한다. 그 바람에 기존 가우도 출렁다리는 청자다리와 다산다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강진청자축제가 열리는 2월이면 모처럼 모든 다리가 북적북적할 것이다. 한 무리의 여행객을 실은 가우도 모노레일이 다시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기쁘하게 언덕을 넘는다. 금목서와 은목서, 황칠나무를 헤치며 나아가던 객차는 청자타워 전망대 앞에 사람들을 내려놓곤 유유히 길을 돌아선다. 가우도는 지금, 이토록 바지런하게 봄을 준비하고 있다.

❏ 강진에서 가까운 기차역은 목포역, 나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불과



빛으로

매병의 기묘한 운명,
세월이 흘러도 형형한 비색,
청자를 빛고 향유했을 고려의 풍정.
모든 것이 그저 찬란하다.

빛다





고려청자박물관 후원에 자리한 청자 제작 과정 관람실은 흙을 물레로 빚는 성형실, 문양을 새기는 조각실, 물레 성형이 불가능한 기물을 빚는 상형실로 이뤄진다.



강진은 청자의 고향이다. 꿈꾸는 듯 오묘한 빛깔, 구름처럼 미려한 무늬를 입은 청자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사당리, 계율리, 수동리와 칠량면 삼흥리 등지의 도요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고려 초기부터 후기의 도요지가 고르게 분포한 강진은 고려청자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훑을 수 있는 고장이며, 국보와 보물급 청자 중 절반 이상을 배출한 땅이다. 단단한 흙, 가마터를 만들기 좋은 천혜의 지형, 유통에 유리한 해상 교통로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도공의 예술적 감수성을 버리는 눈부신 풍광 또한 한몫했을 테다.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제51회 강진청자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청자의 탄생을 상징하는 불과 빛을 주제로 화목가마 불 지피기, LED 소원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문의 www.celadonfesta.co.kr

불과 빛과 흙으로 빛다, 고려청자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일원은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리는 강진청자축제의 장이다. 청자를 시험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했던 사당리 23호 요지, 고려 도공의 후예를 만나는 청자 제작 과정 관람실, 청자의 역사와 유통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담아낸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면 이제 유



**강진은 청자의 고향이다.
꿈꾸는 듯 오묘한 빛깔,
구름처럼 미려한 무늬를 입은 청자가
강진의 도요지에서 쏟아져 나왔다.**

물과 전시를 망라한 주 무대, 고려청자박물관을 찬찬히 감상할 때다. “선명하게 푸른 옥빛이 나니/ 몇 번이나 짙은 연기 속에 묻혔나/ 영롱하기는 수정처럼 맑고/ 단단하기는 돌과 맞먹네”. 고려청자의 미감과 소성 과정을 우아한 언어로 정리한 고려 문인 이규보의 시는 박물관이 방문객에게 건네는 첫 인사다. 기획전 <탐진에서 개경까지-고려청자 보물선>은 2007년 충남 태안반도 인근 해저에서 청자 운반선이 발견된 사건으로 관람의 물꼬를 튼다. 이때 출토된 2만 3000여 점의 청자는 미처 손을 타지 않은 물건이라 표면이 말갱고 형태 또한 온전했다고 한다. “탐진(강진의 옛 이름)에서 서울의 대정 인수에게 사기 80개를 보낸다”라고 쓴 목간, 청자와 함께 수장된 선원의 어깨뼈 등 발굴의 면면이 놀라움을 안긴다. 가느다란 출수구와 흰 상감 무늬가 섬세한 청자상감 모란문정병, 매화와 갈대와 학과 나비를 조화롭게 배치한 청자상감매로학점문사이호 등 전시실을 빛내는 고아한 유물 사이에서 문득 길을 잃었다. 조은정 학예연구사에게 안내를 청했더니, 그는 강진 지역민이 기증한 청자를 눈여겨보라 권한다. “이 매병은 용이 여의주를 중심으로 굽이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아름답죠? 작천면에서 경지를 정리하다가 발굴한 조각을 모아 복원한 거예요.” 수백 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매병의 기묘한 운명, 세월이 흘러도 형형한 비색, 청자를 빚고 향유했을 옛 강진 사람들과 시대의 풍정... 모든 것이 그저 찬란해서, 잠시 말을 잊고 말았다.



한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이 나타난다. 하멜의 생애와 조선 땅에 머물던 시절을 보여 주는 것은 물론, 병영면의 역사를 다양한 자료로 전시한다. 문의 061-430-3318



병영은 하나의 도시였다.
전라병영성은 주변 50여 개 마을을
관장하는 거대한 군사도시로,
영원할 것처럼 견고하고 융성했다.

우리의 걸음은 이제 대구면에서 병영면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간다. 그 시절 병영은 하나의 도시였다. 1417년 광산현(지금의 광주)에 있던 전라병영성은 도강현의 치소였던 수인산 아랫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써 주변 50여 개 마을을 관장하는 거대한 군사도시가 이루어졌다.

전라병영성에서 병영양조장까지

설성은 전라병영성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의 초대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눈 쌓인 자리를 따라 성곽을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

호한 이 성곽은 1060미터 둘레에 3.5미터 높이, 총면적 9만 3139제곱미터(약 3만 평) 규모를 갖췄다. 과거 성안에는 관아와 객사, 군기고와 하마비, 9개의 우물과 5개의 연못 등이 자리했다고 전한다. 병영면과 작천면 사이에는 한들이라 불리던 너른 땅이 펼쳐졌고, 그곳에서 마을과 병영을 모두 먹여 살릴 식량을 재배했다. 주변엔 자연히 군납품을 사고파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인도 모여들었다. ‘북쪽엔 개성상인, 남쪽엔 병영상인’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함락되기 전까지 전라병영성은 영원할 것처럼 견고하고 융성했다.

성벽 바깥에는 조금 낮선 모양을 가진 담벼락이 늘어선다. 빗살 무늬 담장을 따라 좁은 고살이 미로처럼 이어지는데, 이 길을 예부터 한골목길이라 불렀다. 병영면의 다섯 마을을 하나로 꿰는 한골목길의 담을 쌓은 이가 바로 <하멜 표류기>를 쓴 헨드릭 하멜이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스페르베르호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하멜 일행은 태풍에 휩쓸리면서 조선 땅에 표류해 13년 28일을 머문다. 체류 기간 중 절반이 넘는 7년을 강진에서 지냈으니, 이 땅과의 인연이 꽤 깊다 하겠다. 툼툼이 탈출을 꾀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하멜은 사슴 가죽을 팔거나 담을 쌓는 노역으로 돈을 모았다. 담을 축조할 때 맨 아래 세 단은 큰 돌을 괴어 균형을 맞춘 뒤 위쪽으로는 작은

돌을 비스듬한 형태로 놓고 흙을 켜켜이 발랐다. 만듦새도 좋고 내구성도 높았다. 하멜과의 인연으로 강진군은 그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린험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지금까지 교분을 나누는 중이다. 지난해 가을 새롭게 단장한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에 가면 그 증거와 맞닥뜨린다. 하멜이 입었을 법한 네덜란드 복식과 배 안에서 썼을 생활용품 등을 호린험시가 하멜기념관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이 남다른 우정을 더욱 단단히 이어 나갈 모양이다. 하멜의 이름을 내건 ‘하멜 맥주’를 개발하기 위해 네덜란드식 수제 맥주 생산 설비를 구축했으



병영양조장은 오랜 시간 강진을 넘어 한 국을 대표하는 술을 만들어 왔다. 올해 여든여섯이 된 김견식 명인은 오늘도 술 빚기를 멈추지 않는다.
문의 061-432-1010

니 말이다. 보리와 쌀귀리 등 강진 특산물을 활용해 맛을 낸다기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다.

기실 강진의 술을 논하려거든, 병영양조장은 맨 앞에 두어야 마땅한 이름이다. 1946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이곳엔 60여 년 세월 동안 술을 빚어 온 김견식 명인이 있다. 올해 86세를 맞은 명인은 여전히 양조장 일을 살뜰히 돌본다. “곡식으로 술 빚지 말라던 시절, 연탄으로 불을 때면서 밤낮없이 일하고 혼자서 일일이 배달을 다니며 지금껏 버텨지요. 허드렛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고된 일이었어요.” 그 세월을 누군들 헤아릴까.

모진 풍파를 건넌 병영양조장은 병영소주라는 다디단 열매를 맺는다. 강진의 찰보리쌀과 누룩으로 만든 밀술을 3주간 숙성·증류해 만든 병영소주는 2022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맛과 향이 탁월하다. 쌀을 사용하는 어느 소주와 달리 보리의 온화한 향과 부드러운 목 넘김이 인상적이니, 일단 한번 맛보고 나면 잊기 어려운 풍미다. 그뿐인가. 햅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을 발효·증류한 뒤 복분자와 오디를 침출해 독특한 향과 빛깔을 내는 병영설성사또주도 빼놓을 수 없는 명주다. 병영면 별미 돼지불고기백반의 단짠, 병영설성생막걸리 또한 이곳에서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술을 그토록 오랜 시간 빚어 왔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살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룩을 집어 드는 명인의 손등이 그 지난한 역사를 말해 주었다.



따뜻이켜



빛다

“곡식으로 술 빚지 말라던 시절, 연탄으로 불을 때면서 밤낮없이 일하며 지금껏 버텨지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살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간이 되어

“장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100년을 두고 먹는 게 장이니,
그걸 담그며 사는 사람들의 법도가
엄연하다는 걸 이젠 압니다.”

빛다



군동면 신기마을의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은 기름진 옥토에서 자란 쌀과 콩으로 맛 좋은 장을 담근다. 백정자 명인이 다양한 재료를 버무려 만든 즈장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문의 061-434-1616

시간과 기다림으로 빛는 장

또 한 명의 빛는 사람을 만난다. 군동면 신기마을의 백정자 명인은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는 속도에 맞춰 살아간다. “콩 심고 메주 썬어서 전국 팔도에 파느라 바빴죠. 지금은 그저 장이 익어 가는 것처럼 천천히 일하는 중입니다. 주문도 조금씩만 받으니까요.” 해주 최씨 종갓집에서 장 만드는 법을 배운 지 어언 60여 년. 그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된장, 고추장, 청국장 제조를 상업화하고 법인을 운영하며 강진 전통 장의 명맥을 이어 왔다.

명인의 손맛은 즈장에서 꽃을 피운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즈장은 백 명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다. 가을에 수확한 무와 노각을 염장해 두었다가 고춧잎과 가지, 참쌀 죽, 메줏가루, 고춧가루, 옛기름을 섞은 뒤 삭히고 저온 숙성한 발효 식품이 즈장이다. 뜨거운 쌀밥에 얹고 참기름과 비벼 먹을 때 가장 맛있는데, 생각만으로 군침이 꿀꺽 넘어간다.

“옛날엔 메주를 썬거나 장을 담그는 날이면 대문 앞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쳤어요. 소반 위에 소금이랑 물을 떠놓고 절도 했죠. 어머니가 그러라 하대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장 앞에서 깨끗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걸 배웠죠. 100년을 두고 먹는 게 장이니, 그걸 담그며 사는 사람들의 법도가 엄연하다는 걸 이젠 압니다.” 용기를 쓰다듬는 명인의 머리 위로 싸라기눈이 축복처럼 흩날렸다. ❶



<KTX매거진> ×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강진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2월 4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Exquisite Gangjin

In February, Gangjin welcomes visitors with early spring winds, shimmering blue waves, and the fascinating Gangjin Celadon Festival. The festival is reason enough to head to Gangjin, known for its beautiful celadon, traditional liquor, and fermented soybeans.



barley produced in Gangjin is fermented using a starter called *nuruk*, and the liquid is aged for three weeks. Byeongyeong Soju, acclaimed for its taste and scent, received the grand prize in the distilled spirits category of the Korean Sool Competition 2022. Unlike other alcoholic beverages made from rice, Byeongyeong Soju has a mild scent and smooth taste, making everyone a fan once they have had a taste.

Baek Jeong-ja is another grand master who hails from Singi Village in Gundong-myeon. She joined the Haeju Choe clan, and has been making *jang* for around 60 years. Since the 1980s, she has played a part in preserving Gangjin's traditional *jang* by selling *doenjang*, *gochujang*, and *cheonggukjang* products. Her specialty is *jeupjang*, which most people know only by name. Radishes and overripe cucumbers harvested in fall are mixed with chili leaves, eggplants, glutinous rice porridge, fermented soybean powder, chili powder, and malt, and then allowed to ferment over time at low temperatures. As the master fondly pats the traditional *onggi* jar, snowflakes fall on her hair like blessings from the sky. The magical scene is deeply imprinted in my mi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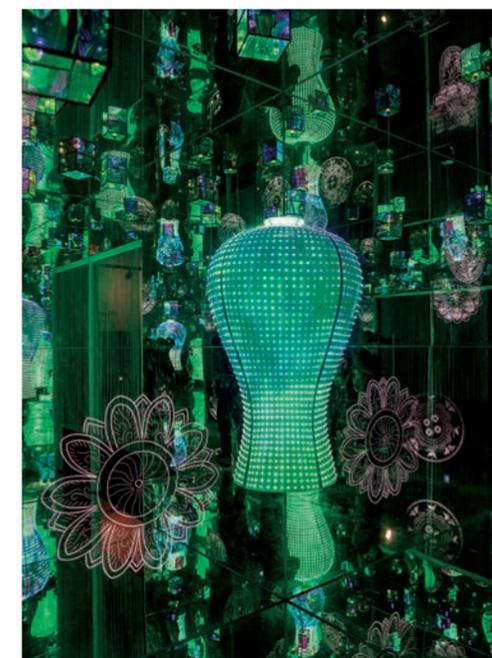
Wind and waves, no matter how strong, turn tame once they hit Gaudo Island followed by Jukdo Island. It is no coincidence that Gangjin literally means “comfortable dock.” The calming blue waters have been compared by some to the jade color of celadon. It is possible that the potters were inspired by the blue-green hues of the sea. The Celadon Tower Observatory on Gaudo Island offers a panoramic view of Jukdo Island, Gugangpo, Mandeoksan Mountain, and Wolchulsan Mountain. The breathtaking scene reminds me what a blessing and privilege it is to be alive.

Born From Fire and Light, Sweat and Time

Gangjin is the hometown of celadon. Celadon wares characterized by their dreamy hues and cloud-like patterns were unearthed from various kiln sites throughout Gangjin, namely, Yongun-ri, Sadang-ri, Gyeyul-ri, and Sudong-ri in Daegu-myeon and Samheung-ri in Chillyang-myeon. The area surrounding the Daegu-myeon kiln sites sets the stage for the Gangjin Celadon Festival, which runs from February 23 through March 1. Explore Sadang-ri Kiln Site No. 23, learn about the process at the Celadon Production Process Showroom, and enjoy media art on the history and distribution of celadon at the Goryeo Celadon Digital Museum. Next, take time to

admire the artifacts and exhibits at Goryeo Celadon Museum, the highlight of anyone's visit to Gangjin.

As you make your way from Daegu-myeon to Byeongyeong-myeon, the timeline shifts from Goryeo to Joseon. In those days, Byeongyeong was a city on its own. In 1417, the military headquarters of Jeolla-do Province moved from Gwangsan-hyeon (known as Gwangju today) to the village at the foot of Suinsan Mountain.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huge military city that took charge of around 50 villages in the surroundings. When discussing Gangjin's liquors, the first name that comes to mind is Byeongyeong Brewery, which opened in 1946. Kim Gyeon-sik, designated as a Korean grand master, has been making Byeongyeong Soju for over 60 years. Waxy





강진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볼거리

올모스트홈 스테이 바이 에피그램 강진 다산의 드높은 지성과 검박한 생활이 깃든 사의재가 모던한 인테리어로 새롭게 변모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이 전북 고창, 경북 청송, 경남 하동에 이어 강진에 네 번째 올모스트홈 스테이를 사의재 한옥체험관에 연 것이다. 다산·월출·청자 등 강진의 자연과 문화를 테마로 한 숙소 여섯 동을 마련하고, 모든 객실에 다구를 두어 언제나 강진에서 재배한 차를 즐기도록 했다. 체크인이 이루어지는 환영재에서는 '강진 산책'이란 테마로 강진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문의 0507-1342-6598



백운동 원림 월출산에서 흐른 물이 안개가 되어 구름으로 올라가는 마을. 백운동이란 이름은 이처럼 신비로운 정경을 품고 있다. 동백나무가 우거진 오솔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백운동 별서 정원이 울연히 나타난다. 조선 중기의 처사 이담로가 가꾼 이 비밀스러운 장소는 선비의 은거 문화를 잘 보여 주는 공간이다. 그들은 유상곡수에 잔을 띄워 놓고 노닐다가 옥판봉을 감상했을 것이다. 다산 선생은 시화집 <백운첩>에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노래하기도 했다. 봄이 오면 월출산 봄 소풍 축제의 일환으로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1-430-3342



먹거리

제일식당 강진청자축제를 즐기러 온 여행자라면 칠량면에서 허기를 달래야겠다. 4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한 심명희 대표는 강진의 제철 식재료로 맛깔스러운 백반 한 상을 차린다. 반찬은 철 따라 맛 따라 달라진다. 이 계절엔 토하젓, 조기 구이, 돼지불고기, 달래무침과 꼬시래기무침, 모자반, 생굴회 등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올린다. 이 집의 별미인 바지락회무침을 더해도 좋다. 새콤달콤하게 양념한 바지락은 순식간에 입안에서 녹아 없어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는데, 공간이 협소한 편이라 예약 후 방문하기를 권한다.

문의 061-432-7065



마당갈비 벽면 가득한 그림이 밥맛과 술맛을 돋우는 이곳은 강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살롱이다. 남편 박명섭 화백이 그린 그림으로 공간을 꾸린 김서영 대표는 21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여문 손끝을 자랑해 왔다. 대표 메뉴는 단연 돼지 양념갈비다. 꼼꼼하게 손질해 숙성한 갈비살을 정성껏 달인 양념에 재워 내니 부드럽고 농밀한 맛이 일품이다. 밑반찬도 알차다. 두툼한 달걀말이는 씹어 넘기는 즐거움이 쏠쏠하고, 깊은 맛의 묵은지는 갈비와 궁합이 좋다. 후식으로 소고기 떡국, 냉면, 바지락죽을 마련했으니 취향껏 선택해도 잘 맞는다.

문의 061-434-0509



프로모션



새해에는 즐기세포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의 대표 주자, 청담셀의원의 즐기세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종의 노화 예방주사라고 설명한다. 이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 재생·분화 능력을 지닌 원시세포인 즐기세포다.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청담셀의원

청담셀의원은 즐기세포 효과에 주목,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돼 노화한 몸을 개선하기 위한 즐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체 즐기세포를 채취하고 링거로 주입해 전신 재생 작용을 향상할 수 있다.

즐기세포를 집중 투여함으로써 평상시에 약하거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위의 회복 역시 기대된다.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Cell)', 두피에 직접 즐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활셀(活Cell)'이 여기에 속한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로 취약한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의 일종이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시작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선제적 안티에이징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기관으로, 즐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국내에서 골수·지방 즐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즐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즐기세포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3년이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기 좋은 이맘때, 한편으로 '한 살 더 나이를 먹어서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든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노화 속도가 빨라져 부담스럽다는 중·노년이 많다. 노화가 두려운 것은 외모가 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면 어느새 일상도 달라진다. 예상치 않게 은퇴 시점이 빨라지기도 한다.

노화 예방의 핵심, 프리주비네이션

이와 관련해 항노화 의학 트렌드가 급변하는 중이다. 노화한 피부나 신체를 젊게 되돌리는 리주비네이션(재생·회춘술)보다 예방 목적 재생술인 프리주비네이션이 강세다. 나이 숫자가 하나 더 늘어도 건강 나이는 더욱 젊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하자. 평상시에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통증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산소운동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근육 강화에도 신경을 쓰자. 조찬호 원장은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두어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을 권한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시엔 현재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해 주는 프리주비네이션 기술을 고려하는 게 유리하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이 일

청담셀의원 02-514-2225

시간이 포개 풍경

대전

물바위들과 영남이 쌓인 상소동 산림욕장을 거닐었다.
대전 테미오래에서 과거의 조각을 발견하고,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서대전역에도 기차가 다닌다.



01 테미오래



자박자박, 흙 밟는 소리가 정원을 울린다. 파사로운 햇볕이 아담한 집을 감싸고, 이름 모를 새들이 나무 사이를 포르르 날며 지저귓다. 담장 너머로 비슷한 집이 몇 채 보인다. 이 부근의 옛 지명 '테미'와 한동네의 몇 집이 이웃이 되어 사는 구역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말 '오래'를 조합해 지은 이름 '테미오래'가 딱 들어맞는 정경이다. 시간이 쌓아 올린 풍경을 만나러 대전에 도착한 지금, 이곳에서 평화로운 겨울의 낮을 만끽한다.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테미오래

테미오래는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과 관사 건물이 모인 곳으로, 철도 관사촌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유일

하게 남은 관사촌이다. 1932년에 지어 2012년까지 고위 공무원이 실제 머물렀지만 충청도청이 흥성 내포 지역으로 이전하며 쓸모를 잃게 된다. 그리고 2019년 4월, 관사촌은 문화 예술 공간으로 단장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관사촌이라는 이름 자체로도 술한 역사가 잠들었을 거란 상상을 한다. 하지만 역사에만 집중해서는 테미오래의 매력을 모두 보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다미방, 일본식 욕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당시 건축양식이 고스란히 건물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일이 보물찾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도지사공관을 포함한 집 열 채를 하나하나 둘러본다. 먼저 충청남도 도지사가 머물렀던 도지사공관에 발을 들인다. 독특한 모양의 소나무와 작은 연못이 아기가

기한 정원을 지나 현관문을 연다. 특유의 긴 복도 너머 넓은 응접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업무를 마치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곳에서 논의와 결재가 이루어졌다. 딱딱한 일을 진행한 방임에도 왠지 편안하다. 벽난로와 한쪽에 크게 난 창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포근한 느낌은 응접실뿐 아니라 복도, 방 곳곳에서 이어진다. 나무창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반짝이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어서 오라고, 반갑다는 듯 방문자를 안아 준다.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내실로 걸음을 옮긴다. 현재 도지사공관에는 한국전쟁 때 대통령이 이곳에 머물렀던 5일 동안 일어난 사건, 그리고 관사를 13년 넘게 사용했던 전 충남도지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이어진다. 전쟁으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안심하라”라는 말을 반복했던 6·27 특별 방송 녹음본, 충남도지사가 사용한 물건들을 전시해 놓았다. 옛 흔적을 보고, 듣고, 쓰다듬는다. 관사 안에서는 당장이라도 과거로 돌아간 듯 역사가 생생하게 전해진다.

테미오래가 품은 예술

과거가 아프더라도 극복하면 성장의 발판이 되기 마련이다. 테미오래도 그렇다. 사무실로 사용 중인 3호, 소실된 4호 관사를 제외하고 1호부터 10호 관사는 다양



테미오래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한다. 미리 요청하면 관사촌의 역사와 테미오래에서 열리는 전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문의 042-335-5701

한 용도로 그 구실을 하고 있다. 1호 관사는 관사촌을 거쳐 간 이에 대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중이고, 2호 관사는 한국 놀이의 역사와 시대별 변천사를 살피고 전통 놀이부터 근대의 오락기, 현대의 메타버스 게임까지 즐기도록 만든 ‘테미놀이박물관’으로 변모했다. 특히 2호 관사는 어린이와 함께 온 방문객에게 인기 만점이다. 아이도 보호자도 놀이로 웃음꽃이 활짝 핀다. 5호와 6호는 휴식 공간과 시민 갤러리로 쓰인다. 가장 늦게 지어 다른 관사보다 현대적 분위기가 물씬한 7~10호 관사에는 각각 테미학당, 테미사랑방, 예술가 레지던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문화창작촌’이라 부른다. 세미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지역민의 문화 등지 역할을 한다. 과거의 어느 날엔 무장한 경찰이 둘러싸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사촌이 시민의 활기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오늘도 테미오래는 문을 활짝 열고 방문객을 기다리는 중이다.





02 상소동 산림욕장

시간과 사건이 겹쳐져 훗날 역사가 되듯, 자연에도 시간과 무엇이 더해져 탄생한 것이 많다. 자연이 만든 것들은 결코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산속의 몇 줄기 개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뽁뽁하게 땅을 채우면 숲이 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꼼꼼히 다듬은 작품을 대전 도심 가까이에서 마주한다.

이국적인 얼음 왕국, 상소동 산림욕장

테미오래에서 출발해 차를 타고 25분 정도 달리자 금세 한적한 산속에 놓인다. 폐 안으로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차 정신이 맑아진다. 상소동 오토캠핑장과 산림욕장을 있는 나무다리를 건너면 얼음 세계가 펼쳐진다. 대전천과 계곡에서 끌어온 물을 스프링클러로 조금씩 뿌려 얼린다. 한 방울, 두 방울. 겹겹이 쌓인 물의 흔적이 얼음에 선연하다. 방울이 모여 얼음 기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꾸준함이 가진 힘을 새삼스레 실감한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얼음 기둥도 보인다. 바닥마저 얼 정도로 추운 날은 기둥 사이에서 썰매도 탄다. 그 덕분에 겨울의 상소동 산림욕장은 ‘얼음 왕국’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산림욕장에는 돌탑과 얼음 조형물 외에도 어린이 숲 체험원 등 즐길 거리가 많다. 얼음 구간은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 042-273-4174



저 멀리 돌탑 무리에 시선이 꽂힌다. 이국적인 자태를 뽐내는 돌탑 앞은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돌탑을 한 개인이 쌓았다는 게 놀라워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랍니다.” 이기봉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덕상 어르신은 작품인데, 2003년에 시작해 2007년까지 무려 4년간 혼자서 17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옮기며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1960년대에도 고향 뒷산에 수많은 돌탑을 쌓아 홍수로 인한 산사태를 막았더니, 실력과 마음씀씀이가 대단하다. 관사촌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도, 돌탑 17개를 완성한 것도 모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앞선 마음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과거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나온 시간이 얹혀 멋진 무언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화려하진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무언가가 마음속에 지어지기를 바라며 돌탑 앞에서 소원을 빈다. **㉠**



아이와 함께 군산 기차 여행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전북 군산으로 떠났다.
아이와 경암동 철길마을,
말랭이마을을 누비며 추억을 남겼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군산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다닌다.



서해금빛열차는 서울 용산
 역과 전북 익산역을 왕복하
 는 관광 열차다. 온돌마루
 실을 비롯해 포토 존과 전
 망 좌석 등으로 구성된 힐
 링실을 갖춰 기차 여행이
 더욱 즐겁다.

문의 1544-7788



아이는 모든 게 신기하다. 처음 전철을 탄 날, 땅 위를 달리는 구간에서
 말했다. “전철이 빨라요, 자동차가 빨라요?” 상황마다 다르다 답하니 그
 상황이 무엇이나 몰랐다. 거리와 속도의 단위, 혹은 러시아워에 대해 설
 명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저기에 자동차들이 가지? 저기랑 여기랑
 어디가 더 빨라 보여?” 아이의 시선이 계속 차창 밖을 향했다.

온돌방에 앉아 경치 감상을, 서해금빛열차

누가 채워 주는 때가 있고 스스로 쌓아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어른은 알맞은 때가 뭔지 몰라 당황하곤 해도 지금 아이는 안다. 언제는
 전철이 빠르며 언제는 자동차가 빠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날 어떤
 비밀스러운 순간이 작디작은 마음을 스쳤을까. 이후 아이는 종종 기차
 를 타고 싶다 했다.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해서, 기차 속도를 직접 알아보

고픈 바람을 충분히 느꼈다. 이번에도 단위
 같은 건 잊기로 하고 전철에 탑승해 서울 용
 산역으로 갔다. 땅 밑에서 올라온 전철이 다
 리를 건너는 동안 빠르고 느린 자동차들을 함
 께 바라봤다.

용산역에 내리자마자 아이는 놀랍다는 듯이
 소리를 지른다. “와, 전철역이 되게 커요.” “전
 철도 타고 기차도 타는 곳이어서 그래. 사람
 이 많이 와서 크게 지은 거야.” 그렇구나, 하
 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인파를 따라 걸어 기
 차 승강장에 닿았다. 잠시 지나 노란색 기관
 차가 객차 다섯 량을 끌고 역에 들어선다. 객
 차에도 여러 무늬를 입혀 외관부터 볼거리다.
 이게 아이에게 얼마나 환상적인 풍경인지는
 방방 뛰는 모습만 봐도 알겠다. 기차가 완전
 히 멈춘 뒤엔 문이 열리는 짧은 시간이 근질
 근질해 아예 춤을 춘다. 서해금빛열차를 예약
 하길 잘했네,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칭찬했
 다. 물론 마음속으로.

서해금빛열차는 용산역과 전북 익산역을 왕
 복하는 관광 열차다. 아산, 홍성, 보령, 서천 등
 충남 구석구석과 전북 군산에 정차하는 노선
 이 여행하기에 좋고, 특히 5호차가 온돌마루
 실이어서 편히 앉아 풍경을 감상하는 데 맞춤
 이다. 온돌마루실은 이미 따뜻하게 덥혀 있었
 다. 몸이 사르르 녹아 가슴까지 훈훈해지는 찰
 나에, 그러든 말든 아이는 차창 앞으로 점프
 해서 얼굴을 바짝 대고는 재잘거리기 시작하
 다. 출발하고도 한참 “이거” “저거” 좀 보라면
 서 손가락을 이리저리 흔드는 통에 오랜만에
 제대로 경치를 구경했다. 마침 어제 눈이 내려
 산과 들이 하얗다. 궁금하지만 묻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고 산과 들을 나란히 보기만 했다.
 마음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기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지금은 흘러넘친다. 아이가 문득 묻
 는다. “근데 있잖아요. 기차가 빨라요, 자동차
 가 빨라요?” “같이 알아보자.” 자동차를 찾는
 우리의 시선이 계속 차창 밖을 향했다.



시속 10킬로미터 속도로 마을을 통과하던 열차는 2008년 운행을 멈췄지만, 경암동 철길마을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골목 분위기와 상점들로 군산 대표 여행지가 되었다.
문의 063-446-5114

기차가 오가던 추억의 골목, 경암동 철길마을

군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문가로 나가 정차하길 기다린다. 아이에게 골미지의 세상이 펼쳐진다. 다시 손을 꼭 잡은 아이가 첫눈처럼 하얗게 웃는다. 그런 표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한 게 언제였더라. 너무 들떠 심장이 두근거린 건 또 언제였지. 더해야 어른이 되는 줄 알고 덕지덕지 붙여 왔으나, 정작 무엇이 붙었는지 알려고 하진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기는 모두가 맑다. 문이 열리고 군산에 첫발을 내딛는다. “가자!” 외치는 사이에 아무 근심도 없다는 양 벌써 아이는 저만큼. 그래, 그렇게 가자.
먼저 방문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이다. 군산 여행은 혼자가 아니어서 계획하는 일이 평상시보다 조심스러웠다. 행여 지루해하면 어쩌나 걱정돼 여행지들을 나 홀로 들었다 놔다 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곳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그다음으로 말랭이마을. ‘경암동 철길마을’ 벽화가 반기는 마을 입구, 아이가 “기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질문인지 탄성인지 아리송한 말을 던지고 뛰어간다. 달짝이는 뒷모습이 예뻐 잠깐이나마 천천히 걸기로 한다. 어디든 백지로 만드는 생명의 조화를 뒤따라 철길을 밟고 눈을 만지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길은 어찌 이리 사랑스러울까. 아이는 모든 게 신기해서 더불어 가는 어른도 어느새 세상이 신기하다. 계획하는 일이 걱정된들 걱정만 하기보다 조금 더 설레어 볼 것을. 달짝이는 저 뒷모습을 다른 여행지와 일상의 풍경에 덧대고 내리 천천히 걷는다. 세상이 새하얀 종이 한 장을 건네주는 듯하다.





여물어 가는 군산의 기억, 말랭이마을

한국전쟁 즈음 피란민들이 금강 인근 신흥동에 마을을 형성했다. 산비탈 바위 위에 판잣집이 다닥다닥한 마을은 1970년대 주민이 8000명을 웃돌아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하고 아파트가 보편화되며 사람들은 하나씩 터전을 뒤로하고 떠났다. 주민이 겨우 100명 남짓으로 줄어 소멸해 가던 2010년대 중반에 기적이 일어난다. 옛일을 품은 마을을 보존하자는 뜻이 모인 어느 날, 군산시가 산비탈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자 결정한 것이다. 철거를 논의한 빈집에 벽화를 그리고 예술가가 입주하고 마을 역사를 알리는 전시관이 들어섰다. “그렇게 된 거래. 산에서 경사가 기울어진 곳이 산비탈인데, 군산에서는 말랭이라고 불러. 참 예쁘다, 그지?” “맞아. 말랭이 귀여워요.” 옹기종기 밥을 나누어 먹는 가족, 만선의 소망을 안고 항해하는 고깃배 벽화가 정다운 날들을 보여 준다. 간직하기 힘든 시대, 땀 흘려 매만지고 공들여 지키는 군산의 시간이 아스라해도 생생하다.

말랭이마을 레지던스 작가 중 김혁수 도예가 공방을 찾았다. 둘러보고 나가자 했다가 아이 표정이 환해서 체험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작가는 흔쾌하게 시간을 내 주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 볼까 이르는 대로 아이는 열심히 흙을 다진다. 도자기 모양을 완성하고는 고개를 숙여서 무언가 적는다. 가만 보니 제 이름이다. 또 한 번 밧그레 옷을 얼굴을 어루만져 보았다. 철길과 칙칙폭폭 소리와 벽화의 순간들이 얼굴에서 손끝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여정을 마무리하고 군산역에 돌아와 기차를 기다린다. 깡충깡충 뛰놀던 아이가 벤치에 같이 앉자 한다. “오늘 되게 즐거운 하루였어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충분한 건지 모르겠다. 하긴 영원히 모른대도 어떠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넘쳐흐른다. **K**

한국전쟁 때 형성된 신흥동 말랭이마을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쇠락해 갔으나 최근 벽화를 입히고 예술가가 입주하면서 군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문의 063-454-5813



교복 대여점에 들렀다. 역시 “이거” “저거” 손가락을 이리저리 흔들지만, 왜 저보다 큰 옷만 가리키는지 아직도 불가사의하다. 마침내 몸에 맞는 옷을 지목했다. 아이는 탈의실 문을 아무지게 닫고 부스럭부스럭 걸어 입는다. 도와주겠다 해도 아니란다. 끄끙 소리를 몇 번 내고서야 탈의실에서 나온다. 밧그레 옷은 아이. 만족했나 보다. 이제 아이 옆에서 마을을 탐방한다. 장난감 가게, 달고나 만들기 체험 상점, 사진관, 벽화, 알록달록 채색한 철길... 서두를 이유 따위는 존재할 수 없는 아이의 우주에 경암동 철길마을이 살며시 들어온다. 달고나가 맛있고 벽화가 아기자기한 우주 한편에 기차가 오가면 더 좋겠다. “예전엔 기차가 다녔어. 이 좁은 골목을 기차가 통과한 거야. 근사하지?” “진짜요? 칙칙폭폭 소리가 엄청 컸겠네. 정말 멋지다!” 어른은 근사하다 표현하고 아이는 멋지게 상상한다. 둘의 간격은 별것 아닐 수도, 전부일 수도 있다. 저만치 앞서가는 아이를 쫓아 칙칙폭폭 소리가 멋진 마을을 거닐었다.



우리 모두의 배경, 청주

피란민이 모여 조성한 마을, 옛사람이 세운 산성, 권력자가 아낀 휴식처까지 충북 청주는 모든 이야기를 품어 준다.

서울 면적 1.5배를 넘는 청주는 많은 것을 가진 도시다.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살아온 풍요로운 자연환경, 충청도 이름의 한 축을 이룰 만큼 번성한 역사,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인쇄한 문화적 기반. 바다 빼고 다 있는 청주는 산과 하천과 호수, 정다운 마을과 농촌, 유서 깊은 유적과 오늘의 문화가 곱게 어우러져 콘텐츠 제작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청주가 극적인 조명을 받은 계기는 2010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다. 2009년 <카인과 이벨> 촬영지로 떠올랐다가 <제빵왕 김탁구> 열풍에 힘입어 전국에 알려졌다. 한국전쟁 피란민이 정착해 형성한 수암골은 기쁨과 슬픔, 따뜻함과 서러움이 교차해 짙은 정서를 자아내는 동네다. 삶이 비탈길인 양 힘들어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의 성장기와 수암골의 조합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알맞은 배경을 만났을 때 발휘하는 시너지의 최고점을 보여 주었다. 골목골목 정겨운 풍경이 이어지

Cheongju, over 1.5 times the size of Seoul, has much to offer, ranging from its peaceful natural environment to the cultural setting behind the birth of the world's first metal type. Content creators have been drawn to the city for its mountains and lakes, lovely villages, historic sites, and the harmony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culture. Cheongju first came under the spotlight in the 2010 television drama *Bread, Love and Dreams*, set in Suamgol Village. The village, formed by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evokes a sense of nostalgia. It establishes the perfect atmosphere for the story of the young baker pursuing his dreams despite the many adversities in life. Several other films and dramas were

고, 청주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망까지 갖춘 마을에서는 이후에도 영화 <20세기 소녀>, 드라마 <너는 나의 봄> 등 여러 작품을 찍었다. 걷다 보면 드라마와 영화 속 등장인물을 만날 듯 장면이 그려진다. 청주를 대표하는 유적 상당산성 또한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 산의 지형을 이용해 쌓은 둘레 4.2킬로미터 성은 도심과 한 발짝 떨어진 입지 덕분에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청주를 조망하고 산책하기 좋다. <대조영> <태조 왕건> <태왕사신기> <육룡이 나르샤> <연모> 같은 사극뿐 아니라 현대극도 종종 배경으로 삼은 이유다.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청남대를 빼놓을 수 없다. 1983년 완공해 역대 대통령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 청남대는 2003년 개방한 이래 수많은 관광객과 촬영팀이 방문했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 <나의 독재자> <킹메이커> <이웃사촌>처럼 정치 권력자가 등장하는 다수 작품이 여길 빌렸다. 당시 시설을 고스란히 보존한 '원본'이기에 딱히 고칠 필요가 없으니 그럴 만하다. 그 옛날 세종대왕도 휴양 차 초정행궁을 짓고 청주에 거둔 역사를 생각하면 이 도시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이 서려도 해도 될 것 같다. 사람이 사는, 사람을 포근히 품어 주는 청주에서는 사람과 이야기가 함께 빛난다. ㉠

shot in the city, and you will find scenes swirling in your mind as you walk through its alleys. Sangdangsanseong Fortress, one of Cheongju's major attractions, has been featured in numerous television series such as *The Legend*, *Six Flying Dragons*, and *The King's Affection*. The fortress sits on the slopes of a mountain and has a circumference of 4.2 kilometers. It is located at a short distance away from the city center, making it the ideal place to take a stroll while admiring the cityscape. Cheongnamdae is another place not to be missed. It was completed in 1983 as the presidential villa, and opened to the public in 2003. Since then, it has attracted countless visitors and filming teams. Among the many political films shot at Cheongnamdae are *The President's Barber*, *My Dictator*, and *Kingmaker*. King Sejong himself stayed in Chojeong Haenggung Palace to recuperate. There is clearly something about Cheongju that calms the mind and body.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MOVIE

<20세기 소녀>

#우암순환도로, 수암골, 성안길



1999년, 친구의 사랑을 이루어 주려 분투하던 열일곱 살 보라에게 예기치 않은 설렘이 찾아온다. 아직 아날로그가 익숙한 시절, 첫사랑은 공중전화와 뽀빠리를 타고 꽃봉오리처럼 맺힌다. 이들이 불량배에게 쫓기고 약속이 어긋나고 오해하며 추억을 쌓은 그곳이 청주다. 영화 <베테랑>에 특별 출연한 마동석은 명대사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를 성안길에서 남겼다.

In 1999, the seventeen-year-old Bo-ra unexpectedly falls in love while tracking her friend's crush. Cheongju is where the protagonists meet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Ma Dong-seok made a cameo appearance in the movie *Veteran* at Seongan-gil.



MOVIE

<1987>

#청남대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안기부장이 대공수사처장에게 말한다. 한 청년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1월부터 6·10민주항쟁이 일어나기까지 그린 영화에서 청남대는 당시 권력층이 은밀히 만나는 장소로 애용하던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등장한다. 1980년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긴박한 장면은 우리가 실제 지내온 역사다.

"The honorable president is very worried," says the chief of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to the commissioner in charge of investigating communists. The film depicts events leading to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Seoul Olympia Hotel, where the rich and powerful met in those days, is actually Cheongnamdae in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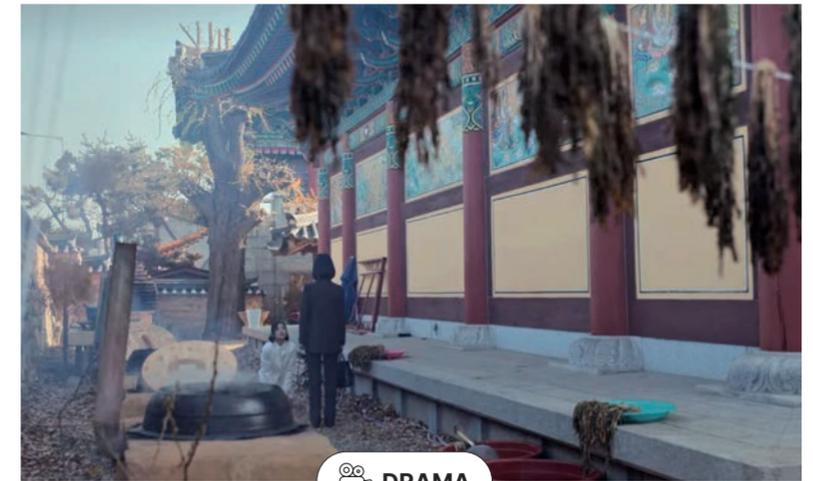
MOVIE

<임금님의 사건수첩>

#상당산성

조선 시대 한양에 괴소문이 퍼지자 호기심 많고 행동력 넘치는 왕 예종은 직접 나서 파헤친다. 그런 그의 결을 늘 따르는 이가 신입 사관 이서. 대비 되는 두 캐릭터 조합이 웃음을 자아낸다. 글과 무예에 모두 능한 임금이 신무기인 조총을 선보이는 장면을 상당산성에서 찍었다. 어리바리한 사관이 지닌 뜻밖의 사격 실력이 반전이였다.

When an odd rumor spreads throughout Hanyang in the Joseon dynasty, the king decides to investigate it himself. His sidekick is Yi-seo, the newly appointed historian. The scene where the king shows off this new rifle was shot at Sangdangsanseong Fortress. The clumsy historian turns out to be quite a marksman.



DRAMA

<더 글로리>

#중앙공원, 용화사



드라마 <태양의 후예>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가 복수극을 내놨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주인공이 가해자들을 움켜쥐어 나가는 가운데, 상대편 집을 무너뜨리는 바둑이 주요 소재로 쓰인다. 중앙공원에서 바둑을 배우는 동안 계절이 흐르고, 이는 공들인 복수 과정을 은유한다. 가해자가 주인공에게 무릎 꿇고 빈 곳은 용화사다. 인연,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The revenge drama written by Kim Eun-sook, who also penned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revolves around Baduk. The school violence victim takes time to learn Baduk in Jungang Park, and the bully seeks forgiveness in Yonghwasa Temple. The word "karma" comes to mind.

그 도시의 맛

오매나, 산꼬라데이, 모디, 이바구... 사투리로 쌓아 올린 신기하고 맛깔스러운 놀이터가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오매나 하우스

광주의 역사적 아이콘 전일빌딩245에 자리한 남도관광센터가 테마별 포토 존, 기념품 숍, 홍보관 등을 단장해 복합 문화 공간 '오매나 하우스'로 거듭났다. '오매나'는 전라도 지역에서 놀람을 표현하는 사투리이자, 광주시 문화 관광 브랜드 '오매광주'의 캐릭터 이름이다. 오매나와 어깨동무하고 인증 사진을 촬영하든, 오매나 캐릭터가 그려진 디자인 소품을 쇼핑하든, 오매나의 안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짜든 오매나 하우스에서라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통통 튀는 사투리를 내뱉으며 광주를 누비는 오매나 덕에 여행이 더 행복해진다.

주소 광주시 동구 금남로 245
문의 062-223-3631



산꼬라데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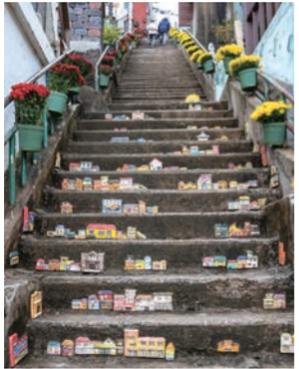
자꾸만 발음하고 싶은 '산꼬라데이'는 강원도 사투리로 산골짜기를 의미한다. '산꼬라데이길'은 김삿갓면 예밀리와 주문리를 잇는 트레킹 코스로, 장장 27.5킬로미터 길이를 자랑한다. 한번에 완주하기 어려운 만큼 망경대산 능선을 예밀길, 송골길, 굽이길, 솔숲길, 만경사길, 명상길, 광부의 길, 모운동길의 8개 테마로 나누어 걷는 재미를 더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이 그렇듯 호젓하고 투박한 풍경이 내내 마음을 잡아끄는 데다 황금폭포 전망대, 만경사와 불화박물관, 정암약수 등 잠시 들렀다 가기 좋은 볼거리가 곳곳에 늘어섰다.

주소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주문리 일원
문의 033-375-8986

문화플랫폼 모디684

옛 안동역사는 1930년 10월 15일 영업을 시작했으나 2020년 12월 17일 중앙선 개량 사업으로 수송 기능을 새 안동역사에 이관한 채 지역 속에서 스러져 갔다. 다행히 2021년 7월, 안동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문화 정거장으로 부활했다. '모두' '함께'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모디'에 옛 안동역 주소를 의미하는 '684'를 합쳐 이름 지은 까닭이다. 대합실과 맞이방은 전시장과 문화 홀로, 사무 공간은 회의실과 작은 도서관으로, 역 앞 광장은 공연 무대로 진화해 안동 시민과 여행자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주소 경북 안동시 경동로 684
문의 054-857-8543



이바구길

부산역에 내리면 광장 쪽으로 직진한다. 곧장 초량교회와 초량초등학교를 지나 168계단에 다다른다. 뽀족한 지붕이 용기종기 모인 수정동·초량동 풍경과 부산대교를 한눈에 품을 때, 비로소 부산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바구길'을 올라야 부산을 제대로 여행했다는 기분이 든다.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한다. 피란민과 공장 노동자 등 역사를 건너온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쌔고 썩' 길. 그 길 위엔 산비탈을 뜻하는 '까꼬막'이란 이름의 커뮤니티 카페도 있다.

주소 부산시 동구 초량1동 994-395
문의 051-440-4284

© 남도관광센터, 영월군청,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사투리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제주도는 사투리의 보고다. 거리 곳곳엔 어멍(어머니)과 할망(할머니), 놀멍(놀며)과 쉬멍(쉬며)은 물론 ' (아래아) 자를 품은 간판이 아무렇지 않게 걸려 있고, 제주항공은 "손님 여러분, 잘도 반갑수다게"라고 시작하는 제주어 기내 방송을 비정기적으로 송출한다. 강원도의 사투리 사랑도 남다르다. 속초 바우지음 조각미술관과 강릉 바우지길의 '바우'는 바위를, 동해 도깨비굴의 '도깨비'는 도깨비를 뜻하는 강원도 사투리다.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다. 그 런가 하면 안내문에 사투리를 넣어 눈길을 끄는 곳도 있다. 충북 제천 자드라칼길 위에는 "이 길로 올라가셔야 수월하대요~ 믿어 봐유~"라고 적힌 표지판이, 경남 거제 구조리마을 셋바람소리길에는 "보이소"로 시작해 "드가서 댕기 보이소"로 끝나는 안내판이 웃음을 준다.



팬스타 원나잇 크루즈 x KTX 별빛 가득 밤바다 여행

※ 출항 18일 전에는 예약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2인 최저가
519,000원

01.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출항시간 17:00(토)
입항시간 09:00(일)
동절기에는 출항시간이 30분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승선수속도 당겨짐)

02. 대한해협 원나잇 크루즈

출항시간 15:00(토)
입항시간 09:00(일)
※ 참고사항
- 고객이 100명 미만일 경우 운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 등 본선 사정에 의해 운항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간표는 현지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의 경우 할증 운임이 발생합니다.
- 터미널 이용료의 경우 현장에서 별도 추가금 발생합니다.



크루즈 코스 (1박 2일)

- 01.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 조도, 태종대, 오륙도, 동백섬, 광안대교 등
- 02. 대한해협 원나잇 크루즈 : 대한해협 국경 근접조망

객실 종류

ROOM TYPE	객실타입	적정 인원
스탠다드룸 트윈침대	내측 / 트윈침대	2
디럭스 스위트	오션뷰 / 트윈침대	2

- ※ 필수 준비물품
- 01. 부산항 : 신분증
- 02. 대한해협 : 여권

크루즈 일정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 매주 토요일 출항 (셋째주 제외) / 대한해협 원나잇 크루즈 : 매일 셋째주 토요일 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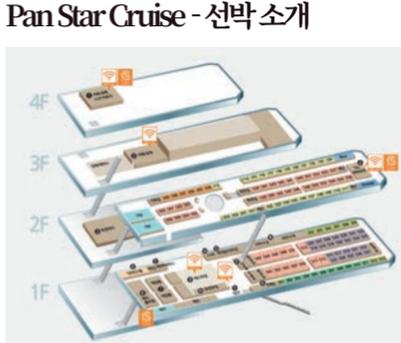
코스	출항	승선수속	선상뷔페	불꽃놀이	입항
부산항 원나잇 크루즈	토요일 17:00 예정	15:30~16:00	18:00~20:00	20:50	일요일 09:00
대한해협 원나잇 크루즈	토요일 15:00 예정	14:20~14:50	18:00~20:00	20:50	일요일 09:00

여행일 2023년 02월~
포함 내역 경부선-부산 2인 왕복 KTX 기차비, 크루즈 비용 (객실이용료, 식사요금, 각종 이벤트 및 공연관람 등)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개인경비, 부대비용 (현장에서 결제 / 필수)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한해협 원나잇크루즈 운항시 대한해협 국경 도착시간 : 17:30
*대한해협 국경 도착 후 포트 클리어런스 (Port Clearance) : 여객의 하선없이 선상에서 입출국 수속 진행



원나잇 크루즈 상품보러 가기



Bangko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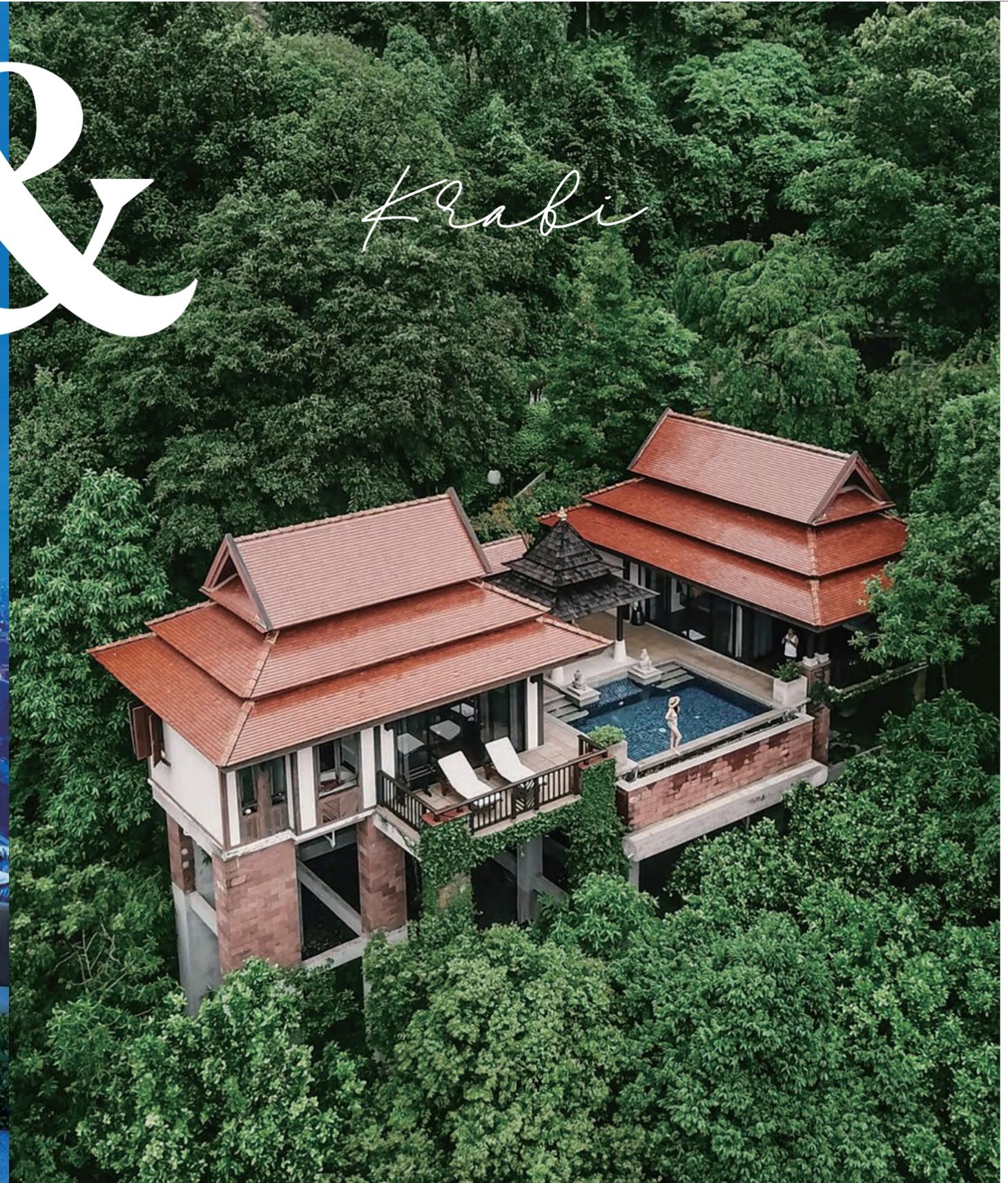
Krabi

따뜻한 휴식, 타이

방콕 137 필라스 스위트 앤 레지던스와 끄라비 피말라이 리조트 앤 스파에서 따뜻한 타이의 겨울을 즐겼다.
도시와 자연 모두를 온전히 누린 날들이었다.



취재 장소: 하이비스 포트폴리오



하루 종일 방콕 탐방

침대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 후 발코니로 간다. 창을 여니 활기 넘치는 방콕 풍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느낌. 137 필라스 스위츠 앤 레지던스 방콕에서 맞는 아침은 그랬다. 스위트룸에 딸린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 후 30층으로 올라간다. 호텔 최상층에 자리한 루프톱 인피니티 에지 풀에서 아쿠아 줌바댄스를 배우기 위해서다. 방콕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풀에서 찰박찰박 물장구를 친다. 사방이 뚫려 하늘 위를 헤엄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신나는 음악과 강사의 몸짓을 따라 줌바를 추다 보니 어느새 허기가 진다. 배 속을 달래기 위해 풀 밖으로 나온다.

스위트룸 투숙객만이 이용하는 레스토랑 ‘반보르네오 클럽’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식 뷔페를 운영해 느긋한 여행을 선호하는 이도 만족스러워하는 곳이다. 바삭한 페이스트리로 속을 든든히 하고 루이 투어에 나선다. 방콕의 여러 여행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예술·문화·식도락 등 주제를 하나 정한 뒤 런던캡 루이를 타고 직접 선택한 세 여행지를 방문한다. 이번 루이 투어의 주제는 식도락.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카오’에서 매콤새콤한 퐁얌꿍, 게살을 넣은 오믈렛 등 타이 음식을 마음껏 맛본다. 방콕에도 어둠이 찾아든다. 하루를 마무리할 일정은 마사지다. 28층의 니트라 세레니티 센터에서 아로마세러피 마사지를 받으니 뭉친 근육이 스르르 풀린다. 하루 동안 쌓인 여독을 털어 낸다.

137 필라스 스위츠 앤 레지던스 방콕
 59/1 Sukhumvit Soi 39,
 Klongton-Nua, Wattana,
 Bangkok
 www.137pillarshotels.com



[온전한 자연, 꼬란타섬]

끄라비 남부에 위치한 꼬란타섬은 52개 섬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섬은 가장 큰 꼬란타야이와 꼬란타노이. 피말라이 리조트 앤 스파 투숙객은 끄라비 본토와 꼬란타야이의 리조트를 오가는 전용 쾌속정을 이용해 자연의 품으로 들어온다. 투명한 잉크빛 바다와 석회암 암석들이 눈길을 사로잡아 이동하는 시간마저 잊을 수 없다.

자연이 그린 그림, 끄라비

타이의 자연이 빛은 보물을 마주하러 끄라비로 향한다.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날아 끄라비 공항에 닿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차를 타고 한 시간, 또 선착장에서 쾌속정을 타고 50분을 가셔야 꼬란타섬에 도착한다. 끄라비 깊숙한 곳에 있는 피말라이 리조트 앤 스파는 이곳까지 온 여행객을 위로하듯 보석 같은 풍경을 내어 놓는다. 에메랄드빛 바다, 짙은 초록으로 물든 숲, 수채화를 닮은 평온한 해변... 아름다운 풍경에 탄성이 터진다. 무꼬란타 국립공원 안에 자리해 자연이 놀라운 만큼 온전하게 보존된 이곳에서의 나날은 마법에 걸린 듯 황홀하기만 하다. 해변과 맞닿은 레스토랑 겸 바 ‘락 탈라이’에

서 닭고기 카레 볶음밥, 팟타이 등을 주문해 여유롭게 점심을 먹는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빨대는 레몬그라스 줄기를 이용하고, 음식에 올리는 장식은 식용 재료로만 만든다. 속으로 가고 싶을 땐 버기카를 호출한다. 빌라 형태로 각각 떨어져 있어 객실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개인 수영장을 마련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원하는 시각에 수영을 즐기도록 했다. 이제 옷차림을 가벼이 하고 피트니스센터로 향한다. 손에 봉대를 감고 전문 강사와 무에타이 동작을 열심히 연습한다. 세프와 함께 타이 요리를 만드는 쿂� 클래스도 재미가 쏠쏠하다. 자연을 즐기고 음식도 맛보며 느리지만 알차게 보낸 하루가 막을 내린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세며 다음 날 만날 끄라비를 기대한다. 1

피말라이 리조트 앤 스파
 99 Moo 5, Ba Kan Tiang
 Beach Koh Lanta, Krabi
 www.pimalai.com



방콕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Bangkok



찢페어야시장

방콕의 활기를 느끼고 싶은 이에게 이곳을 추천한다. 타이 전철인 MRT를 타고 팔람9역에 내려 센트럴 라마9 백화점 뒤쪽으로 들어가면 시끌벅적한 야시장이 보인다. 타이만의 분위기도 만끽하고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쇼핑도 즐긴다. 주류, 타이 전통 음식은 물론 각종 간식거리와 의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천막이 늘어섰다. 단, 타이는 대마초 판매가 합법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음식을 살 때는 대마초가 들었는지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야시장은 쉬는 날 없이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 Rama IX Rd., Huai Khwang, Bangkok



깜티엥 하우스 박물관

우뚝 솟은 빌딩이 즐비한 가운데, 낮은 목조 건축물이 눈에 띈다. 타이 북부에 있던 전통 가옥을 방콕으로 통째 옮겨와 민속 박물관으로 활용한 곳이다. 19세기의 건축물로, 비가 많이 오고 후덥지근한 타이 기후 특성상 홍수와 지열을 피하기 위해 기둥 위에 지은 집이 인상적이다. 잡귀를 쫓아 액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은 지붕의 V자 모양 장식, 높은 천장, 옛날식 주방 등이 그대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전통 가옥에서 타이의 옛 모습을 엿본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 131 Asok Montri Rd., Khlong Toei, Watthana, Bangkok



끄라비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Krabi



텅에땡 맹그로브숲

잔잔히 흐르는 강에 카약을 띄운다. 노를 저으며 맹그로브나무 사이를 지나간다. 카약 위에서 숲을 자세히 관찰한다. 저들끼리 얽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뿌리가 여기저기 삐죽하다. 맹그로브 나무 씨앗을 직접 진흙에 꽂아 심는 경험도 해 본다. 뜨거운 날씨에 지쳤다면 투어 중 제공하는 달콤한 타이 전통 간식과 음료로 체력을 보충한다. 맹그로브뿐 아니라 이곳에서 서식하는 원숭이 떼도 심심찮게 마주치니 놀라지 말 것. 자극하지 않는 이상 온순해서 걱정은 넣어 두어도 좋다.

📍 H3WC+3J8, Sala Dan, Ko Lanta District, Krabi



꼬하

피말라이 리조트 앤 스파가 있는 꼬란타야에서 쾌속정으로 약 30분을 달리면 도달하는 환상적인 섬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둘러싸인 작은 모래사장이 보일 때쯤 쾌속정을 멈추고, 속이 다 비칠 정도로 맑고 깨끗한 바다로 뛰어든 준비를 한다. 스노클링 장비를 장착하고 그대로 입수한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형형색색 산호와 무리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들, 말미잘과 흰둥가리가 춤을 춘다. 운이 좋으면 바다뱀, 바다거북, 조그만 상어도 만날 수 있다. 가히 스노클링과 프리다이빙 성지라 할 만하다.

📍 Koh Ha, Khao Thong, Mueang Krabi District, Krabi



카발란

어떤 생각이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이는 통념이 되기 위해선 믿음직한 근거가 필요하다. 일례로 위스키는 숙성 기간을 늘릴수록 맛과 향이 깊어진다. 알코올이 증발하는 만큼 원액의 향미가 살아나는 한편, 남은 알코올이 수분과 결합해 부드러움을 더해 가기 때문이다. 21년산, 30년산 위스키의 인기를 상기해 보자. 이런 명백한 근거로 숙성 기간과 맛의 인과관계는 모두가 인정하는 유일한 통념이었다. 단, 위스키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숙성 기간을 과격적으로 줄인 위스키를 마시고 몇몇이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오래 숙성하지 않아도 맛과 향이 그득할 수 있다.' 생각은 빠르게 확산한 끝에 모두가 인정하는 또 하나의 통념이 되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고 업계의 판을 흔든 위스키, 바로 카발란이다.

발상의 전환, 위스키의 새 길

아열대기후에선 위스키 주조가 불가능하다?
카발란은 편견을 깨뜨리고 최고 반열에 올랐다.

©KAVALAN





믿음으로 개척한 새로운 세상

액체는 증발한다. 서로 당겨서 결속한 분자들 가운데 표면에 위치한 것부터 인력을 끊고 날아간다. 분자의 운동에너지에서 기원하는 증발 현상은, 당연하게도 시간 흐름을 전제로 한다. 움직임, 충돌, 에너지 생성과 형태 변환이 시간을 따라 거듭 일어나는 것이다. 위스키 또한 액체이기 에 숙성할 때 원액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를 감내해야 하는 위스키 업계는 증발한 원액을 ‘천사의 몫(Angel’s Share)’이라 불려 왔다. 충분히 이해한다. 향미를 얻고자 반드시 지불하는 비용인데, 차라리 천사에게 주었다고 여기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겠다. 평균기온이 낮은 영국 스코틀랜드 스카치위스키 증류소의 원액은 1년에 2~3퍼센트 기화한다. 이 정도 수준에선 천사를 끌어들이는 익살스러운 표현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만, 매년 10퍼센트 이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크통에 넣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증발하는 탓에 6~7년 뒤엔 후하게 쳐 봐야 절반만 생존하는 비극(?)이 기다린다. 악마의 몫이라 명명한들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정말 비극일까. 놀랍게도 카발란은 타이완에서 주조한다. 2005년 설립한 카발란 증류소가 첫 위스키를 선보인 2008년 무렵엔, 다시 말해 수백 년에 달하는 위스키 역사를 통틀어 그때까지는 극소수의 증류소를 제외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원액이 1년에 최소 10퍼센트 증발하는 아열대기후에서 주조하겠다는, 설령 그리 밀어붙였다 해도 생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서늘한 스코틀랜드 날씨는 장기 숙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공인받았다. 천사가 가져가는 몫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오크통에 오래 보관함으

로써 맛과 향에 깊이를 배가하는 마법 같은 환경이다. 업계의 통념에서 한참 벗어난 타이완 기후를, 카발란 증류소를 세운 킹카 그룹 리텐차이 회장은 행운으로 보았다. 막대한 원액 증발량도 역발상을 통해 비극이 아닌 축복으로 삼았다.

그 생각의 전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주조 기술에 알맞은 기후가 있다기보다 기후에 알맞은 주조 기술이 있다.’ 주어와 대상어를 바꾸기만 한 아이디어는 활로를 개척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일단, 타이완에서는 천사의 몫을 감안하더라도 숙성 기간이 짧아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한다. 떨어지는 생산 효율을 오히려 기회로 판단한 셈이다. 거의 시도해 본 적 없기에 과연 그럴까 했으나, 빠른 생산과 유통의 강점이 생산 효율의 약점을 상쇄한다는 숨은 진실이 드러났



다. 위스키 성숙도가 정점을 찍는 숙성 기간이 스코틀랜드에서는 30년인 데 비해 카발란 증류소에서는 길어야 8년이었던 것. 나아가 오크통 품질과 블렌딩 기술을 전면 개선해 고가의 스카치위스키 못지않은 향미를 완성했다. 아열대기후에선 보리를 재배하기 힘들다는 약점 역시 질 좋은 품종을 까다롭게 골라 수입하면서 강점으로 승화했다. 하나하나 길 없는 길이어서 모두 앞이 캄캄한 도전이었다.

위스키 증류소를 지을 당시 리텐차이 회장은 해외 전문가를 대거 초빙해 조언을 받았다. 그들은 입을 모아 불가능하다며 만류했다. 모든 게 상식에서 비껴난 환경이었다. 현재는 카발란이 걸어왔고 걷는 그 길을 상식이라고 말한다. 세상사로 확장해서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생각의 전환, 도전, 실현과 성공의 드라마틱한 사례로 꼽힌다. 시야를 좁히면 증류소 한 곳의 이야기지만, 넓게는 꿈과 희망을 믿고 관념을 혁신하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바야흐로 확실하게 언급할 차례다. 두 이야기 중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카발란은 기가 막히도록 맛있다.

열대 과일 맛이 섬세하게 어리는 디스틸러리 셀렉트, 숙성 전에 오크통을 그을리고 태워 바닐라 향이 더욱 은은한 솔리스트 비노 바리끄, 감귤 향에 뒤따라 견과류 맛이 긴 여운을 선사하는 솔리스트 포트. 무엇보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 등장한 솔리스트 올로로스 셰리 싱글 캐스크 스트렝스는 카발란의 시그너처 브랜드다. 스페인 주정 강화 와인인 셰리를 담은 캐스크에서 숙성한 이 제품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위스키로 만들 수 있는 궁극의 감미로운 향기와 가슴에 번지는 풍요로운 셰리 맛을, 두고두고 기억하리라 문득 깨달아 버린다.

잊을 수 없는 궁극의 향

세상은 카발란에 경배에 가까운 찬탄을 보낸다. 2010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이스팅(브랜드 라벨을 가리고 시음해서 평가하는 테스트) 대회에서 쟁쟁한 스카치위스키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많은 위스키 증류소가 카발란을 좇아 숙성 기법 개발에 천착하는 흐름이 형성된 것도 마찬가지. 이후 다수 대회를 석권한 카발란은 오늘도 아열대기후 속에서 빠르게, 그러나 깊이 익어 간다. 이제 카발란을 잔에 따라 보자. 천사에게마저 넘겨주기 아까운 향기가 몸을 흠뻑 적실 것이다. 그다음에 한 모금. 무슨 말을 보태랴. 두고두고 기억하리라는 것을, 다만 우리는 느끼고 예감하고 확신할 뿐이다. 13



아열대기후라는 불리한 여건을 뒤집어 기회로 삼은 카발란은 솔리스트 포트, 올로로스 셰리 오크 등 명품 위스키를 연달아 개발하고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름에 강진을 품은 강진원 군수는 전남 강진 토박이다. 고향을 별나게 아름답다고 소개한 그가 2월 강진청자축제를 찾을 이들을 위해 여행 코스를 귀띔했다.



별나게 아름다워라, 강진



문남우 ㉔

Q. 강진군 작전면에서 태어나셨죠. 토박이로서 강진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세요. A.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푸근한 게 고향이지만, 제가 나고 자란 강진은 산과 강, 바다와 섬, 갯벌과 평야를 모두 갖춘 별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강진만에서 쫄쫄이를 잡으며 '깨복쟁이(벌거숭이를 뜻하는 전남 사투리)'처럼 놀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간 <목민심서>를 비롯한 저서 500여 권 대부분을 이곳에서 집필했습니다.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쓴 시인 김영랑에게 영랑의 정서적 토대가 되어 준 것도 강진이지요. 무엇보다 2023년은 강진을 '남도 답사 일번지'로 꼽은 미술사학자 유홍준 선생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펴낸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덕분에 강진은 30여 년간 남도를 대표하는 여행지의 위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산의 지성, 영랑의 감성, 민초의 삶과 문화가 깃든 강진의 풍경은 언제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Q. 강진 방문객 연간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행자를 맞이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 강진을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이달 강진에 오신다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사람 그리고 불'을 주제로 열리는 강진청자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불과 빛으로 어우러진 따뜻한 겨울 축제의 낭만이 넘실거릴 겁니다. 이 축제를 시작으로 봄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멜 맥주와 함께 불고기 파티를 여는 '병영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의 날과 수국 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감통과 중앙로 상가는 '음악 도시'로 꾸며 버스킹을 펼치고, 마량놀두수산시장은 Z세대를 겨냥해 사진 찍어 공유하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Q. 이번 강진청자축제 방문객에게 여행 코스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A. 강진군청 옆에 자리한 영랑생가부터 출발해 보면 어떨까요. 곧 모란을 피워 올릴 가지를 보며 영랑이 떠올렸을

시상을 만끽하면서요. 뒤쪽에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 세계모란공원에 닿으면 지역민만 아는 솔 향 가득한 임도로 연결됩니다. 충혼탑에서 금곡사에 이르는 총 2.59킬로미터 구간의 완만한 오솔길이니 명상하듯 천천히 걸어 봅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 처음 머물렀던 사의재도 여기서 지적이에요. 온 김에 '동문주막'에서 선생이 즐기셨다는 아옥국과 비지라적으로 구성한 '다산 정식'을 맛보시길 권합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자리하니 함께 둘러봐도 좋겠네요. 이제 가우도북합남시공원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다산다리를 건너 가우도를 트레킹하든, 짜릿한 집트랙을 체험하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아, 마량항도 빼놓을 수 없죠. 가수 임영웅 씨가 부른 '마량에 가고 싶다'가 바로 이곳을 무대로 삼거든요. 회 한 접시 앞에 두고 고급대교를 바라보면서, 속살 거리는 밤바다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세요.

Q.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 미식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메뉴를 꼽아 주세요. A. 강진 대표 음식은 한정식이죠. 한정식을 이미 드셔 보았다면, 이번엔 우리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보양식 회춘탕을 권하고 싶네요. 이름에서 짐작하듯 먹으면 젊어진다는 뜻이지요. 강진은 해산물을 포함한 식재료가 다채롭고 풍부한 고장이예요. 회춘탕은 문어와 전복, 닭고기가 들어가는 저지방, 고단백의 건강식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라 에너지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진에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시장, 상가에서 물품을 구매할 여행자를 대상으로 추천해 상금을 드립니다. 누적 관광객이 10만 명 늘어날 때마다 상금은 100만 원씩 늘어나, 최종 5500만 원이 될 때까지 10명에게 총 1억 원을 씁니다. 강진에 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Q. 2023년, 나아가 앞으로 강진에서 어떤 여행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귀뜸해 주세요. A. 강진만생태공원은 지난해 생태탐방학습홍

보관을 준공한 데 이어 생태체험관 건립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요트, 카약, 수상스키 등 레저와 생태 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형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의 청사진을 그리면서요. 마량항은 낚시배 20척을 유치해 레저 휴양 지구로 키워 갈 계획이고, 편백나무 4만 5000그루가 늘어난 길을 걸으며 치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칠랑 초당림도 머지않아 공개합니다. 먹거리도 개발 중입니다.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린협시와 자매결연을 한 강진은 특산품인 살귀리로 만든 하멜 맥주를 선보입니다. 네덜란드 전통 맥주 제조 방식으로 이미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상태예요. 자매품 하멜 커피도 레시피 개발에 착수해 지난 연말에 시음회를 열었지요.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먹고 마시며 청신한 자연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곳, 강진으로 오세요. 2월 날씨가 제법 따뜻하답니다. ㉔

PHOTO PICK
강진 여기서 한 컷

gangjin-gun · 강진군청

좋아요 134개 · 1월 5, 2023

밤마다 조명을 밝히는 가우도 출렁다리. 검푸르던 바다가 환하게 변모했네요. 모노레일부터 출렁다리 야경까지, 강진은 오늘도 밤낮없이 아름답습니다. #강진여행 #강진군 #가우도 #출렁다리 #야경사진 #밤바다 #여행스타그램

Treasure of Korea



상형청자의 절정
-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동식물 등 특정 사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를 상형청자라고 한다. 고려는 12세기 들어 정교한 상형청자와 맑고 푸른 비색청자를 완성했다. 향을 태우면 투각한 칠보무늬의 뚜껑 사이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는 음각과 양각, 철화, 상감, 첩화 등 고려 시대 청자 장인이 구사한 모든 장식 기법이 쓰인 작품이다. 아름다운 조형성, 화려하지만 절제된 장식이 가히 명품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아래쪽에 귀여운 세 마리 토끼가 향로를 받친 모습이 눈길을 끈다. 눈에 산화철로 점을 찍어 눈동자까지 세밀하게 표현해 생동감을 더했다. 토끼는 예부터 장수와 지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여겨 왔다. 활기찬 계묘년, 토끼가 있는 향로와 함께 시작해 보자. 이 유물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에서 만날 수 있다.

Zenith of Figurative Celadon
- Celadon Incense Burner with Openwork

Figurative celadon refers to celadon wares modeled after plants and animals. In the 12th century, Goryeo produced sophisticated celadon in figurative shapes and a distinctive jade color. The celadon incense burner with openwork was created using various decorative techniques practiced by Goryeo's master potters, such as engraving, underglaze iron, and inlay. The three rabbits supporting the pedestal have black slip dots as eyes, which give them a sense of vitality. You are invited to kick off the Year of the Black Rabbit by admiring the celadon incense burner, on display at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zzle



<비마이펫 숨은 명남이를 찾아라>

간지리, 고양이, 삼색이와 함께 숨은그림찾기 세계 여행을 떠나자; 비행기 타고 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아끼기만 그 림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대표 도시의 특징을 알아본다. 반려동물 관련 지식·정보를 소개하는 비마이펫은 유튜브 채널과 도서로 만날 수 있다. **비마이펫, 박지영 지음 서울문화사 펴냄**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서울문화사, 비마이펫



철도안전연구원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 우리 손으로 한국철도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지속 가능한 기차 여행을 위해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은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



(왼쪽 뒷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희정 전임, 고재완 주임, 안성수 주임, 김은성 주임, 이우선 팀장,
이준원 팀장, 이영근 사업단장, 이선영 팀장, 이성희 주임

Q.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어떤 곳인가요? A. 사업단은 한국철도공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철도안전연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철도안전연구원은 120여 명의 연구진이 모여 경영 효율, 기술 혁신, 철도 안전을 도모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죠. 우리 사업단은 철도 차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끊임 없이 움직이는 철도 산업의 엔진 같은 조직입니다. 국내 철도 차량 부품의 자체 기술력을

높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사업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이루고자 풍부한 R&D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이끄는 총괄연구팀, 과제별 연구 및 공정을 살피는 사업관리팀, 각종 행정을 관장하는 사업지원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Q. 사업단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감회가 어떤가요? A. 2020년 4월에 출

범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철도공사 연구원(현 철도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기획 과제로 선행 작업을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차량 부품 개발 마스터 플랜'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고,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2020년 3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원 선정 평가를 통해 본 사업의 협약을 체결했으니 기나긴 여정이라 할 만하죠. 정부에서 1220억 원을 출연하고 80여 개의 산학 협력 기관과 80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초대형 사업이니만큼 해가 지날수록 책임감이 점차 강해지네요.

Q. 현재 사업단이 목표에 어느 정도 다다랐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는 순항 중이고, 이제 막 반환점을 지났다 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철도 부품 15종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철도 부품은 시장 진입형 부품과 미래 시장 선도형 부품으로 나뉩니다. 전자의 경우 2020년에 3종(제동 시스템, 주회로 차단 시스템, 공조 시스템), 2021년에 5종(램퍼, 공기 스프링, 팬터그래프, 냉각 팬, 트램 관절 장치), 2022년에 2종(지하철 출입문, 해치 시스템)을 개발 착수한 이래 설계,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을 거쳐 지금은 시험 검증, 인증 획득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통합 현차 시험(실제 차량의 성능 시험)을 앞둔 상태죠. 미래 시장 선도형 부품 또한 2021년에 5종(통합 제어 플랫폼, 동력 전달 시스템, 자동 연결 분리 시스템, 반도체 변압기,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을 개발 착수했고, 설계 단계를 거쳐 1~2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시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수준의 핵심 기술 확보가 관건이죠.

Q. 차세대 고속열차에도 사업단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나요? A. 물론입니다. 사업단에서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 함께 KTX-이음의 핵심 부품 8종을 개발 중이에요. 열차의 제동을 담당하는 제동 디스크·패드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주회로 차단 시스템, 승객의 쾌적한 객실 환경을 제공하는 공조 시스템, 열차의 주행 안정성 및 승차감을 높이는 램퍼와 공기 스프링, 전력을



공급하는 팬터그래프, 주요 기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냉각 팬, 열차 자동 연결에 필요한 해치 시스템이 그 주인공이죠.

Q. 개발 중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제품에 반영해 부품 기술력을 높이면 개발 기업과 운영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하필 사업을 착수한 시점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접어든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 한동안 애를 먹었지만, 화상 회의를 비롯한 원격 소통을 시도한 끝에 연차별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Q. 팀워크는 좋은 편인가요? 구성원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사업단을 이끄는 이영근 사업단장이 언제나 솔선수범합니다. 총괄연구팀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가능성을 믿는 이준원 팀장과 현차 시험 전문가 안성수 주임연구원이 역량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사업관리팀

은 긍정의 아이콘 이우선 팀장, 예절 바른 철도인의 귀감 유희정 전임연구원, 공학 설계 전문가 김은성 주임연구원이 책임지고 있죠. 사업지원팀은 한 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선영 팀장, 행사 기획의 귀재 고재완 주임연구원, 분위기 메이커 이성희 주임연구원이 나서 사업단 전체를 독려합니다.

Q. 사업단의 올해 포부를 들려주세요. A. 차세대 고속열차 EMU의 핵심 부품 8종을 비롯해 전체 개발 부품의 성공적인 현차 시험 시행입니다. 현차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부품 인증, 개조 승인 및 신고, 기술 자료 검토 등 어렵고 까다로운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난관을 거쳐야만 안전이 확보된 부품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죠. 사업단 직원과 연구진이 힘을 합칠 때, 어려움을 헤치고 의미 있는 성취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2023년 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Q. 사업단 업무가 마무리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A. 우리가 개발한 핵심 부품 8종을 설치한 KTX-이음 열차를 타고 사업단 직원들과 강원도 강릉 정동진 일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열차가 안전하게 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거든요. 노력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요. 더 안전하고 더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단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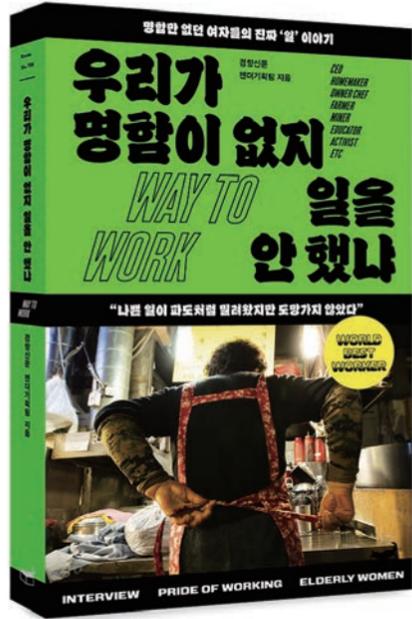


우리가 개발한 핵심 부품 8종을 설치한 KTX-이음 열차를 타고 사업단 직원들과 강릉 정동진 일출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열차가 안전하게 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거든요.

BOOK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나>

“집에서 쉬어” “집에서 놀아”라는 말의 무지와 폭력성. 집 밖에서 역시 건물 청소, 돌봄, 식당 노동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시선. 여성 노동을 저평가해 온 역사는 길고도 뿌리 깊다. 젠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이 수십 명 여성을 인터뷰해 이들의 삶을 기록했다. 번듯한 명함은 없어도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며 평생 'N잡러'로서 중형 무진한 여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것이 언니들 인생이다. **경향신문 젠더기획팀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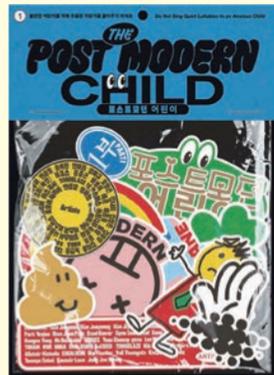


<산사 명작>

사찰은 아름다다. 건물 자체도 그렇고, 불상·불단·범종·벽화·탱화·탑·윤장대·문살무늬 등은 간절한 마음과 깊이 있는 공부, 당대의 기술이 만난 총체다. 막연히 보아도 좋지만, 눈을 기르면 명작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법. 관련 분야에서 20년 넘게 사진을 찍은 작가가 사찰의 명작 23선을 사진과 함께 해설해 준다. **노재학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EXHIBIT



<포스트모던 어린이 1부>

위에서 가르치는 아래의 존재하기에 앞서 어린이는 같이 성장하는 생명이다. 김나희 등 작가 36명(팀)이 우월과 열등의 차별화한 관념을 딛고 함께하는 세상을 보여 준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른에게 질문을 던지는 회화·조각·설치 총 130여 점을 감상하고 큐레이터 토크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기간** 4월 23일까지 **문의** 051-220-7400(부산현대미술관)



<마틴 마르지엘라>

메종 마르지엘라를 창립한 패션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 전위적인 작업으로 영감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은둔을 고수하는 그의 예술을 한국에서 처음 만난다. 인체 3D 스캔 조각 '토로스 시리즈'를 비롯해 설치·영상·페인팅 50여 점을 작가와 협업으로 정교하게 배치한 갤러리 공간 또한 작품이다. **기간** 3월 26일까지 **문의** 1544-7744(서울 롯데뮤지엄)



<비타 노바 새로운 삶>

팬데믹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시각 예술가 10명이 80여 점에 이르는 작품을 통해 시대의 진실한 모습을 화두로 던진다. 금혜원은 도시에 은폐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촬영한 작품으로 망각 혹은 방치해 버린 삶을 드러낸다. 민경은 팬데믹이 뒤바꾼 인간관계를 '신체 조각' 시리즈에 담았다. **기간** 3월 5일까지 **문의** 032-760-1000(인천아트플랫폼)

MOVIE



<다음 소회>

밝고 씩씩한 아이였던 소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 통신사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하루하루 시들어 간다. 선생님은 학생을 대기업에 들여보냈다고 기뻐하지만, 실적 압박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소회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2017년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또 다른 소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역설한다. 2월 8일 개봉. **감독** 정주리 **출연** 김시은, 배두나

<라스트 버스>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존오그로츠는 그레이트브리튼섬 최북단에 위치한다. 이곳에 사는 노인 톰은 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남쪽 마을 랜즈엔드를 찾아가기로 마음먹는다. 섬을 종단하기 위해 톰이 선택한 교통수단은 버스. 노인 무료 교통카드를 동력으로 나아가는 톰의 여정을 목격한 이들은 그를 '#버스영웅'이라 추앙하고 응원한다. 2월 9일 개봉. **감독** 길리스 매키건 **출연** 티모시 스폴, 필리스 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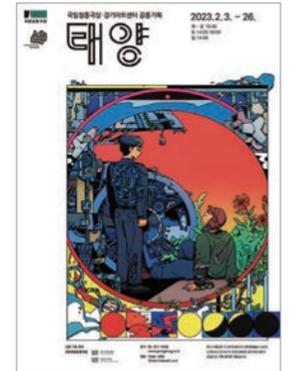
ENTERTAINMENT



<군터, 밀리에너 도그>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한 건공이 있다. 그의 이름은 군터,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저먼 셰퍼드다. 초호화 저택과 요트, 비행기는 물론 수행원 군단까지 거느린 군터의 수상한 생활을 좇는 4부작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가 도착했다. 신탁 기금 관리인 마우리치오 미안이 저지른 세금 사기의 현장과 세상을 놀라게 할 비밀을 캐낸다. 2월 1일 공개. **제공** 넷플릭스 **연출** 에밀리 듀메이, 오렐리앵 레튀르지 **출연** 리 달버그

SHOWS



<태양>

바이러스로 인구가 급감한 세계. 항체가 생긴 인간은 강한 육체를 얻은 대신 태양을 피해 살아야 하는 신인류 노스루 진화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구인류 큐리로 전락한다. 두 종족은 세상을 낮과 밤, 어둠과 빛으로 가리며 반목한다. 극작가 마에카와 도모히로의 동명 희곡이 원작인 연극이다. **기간** 2월 3일~26일 **장소** 서울 국립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2024 이심삼각>

국립현대무용단이 고독과 고립, 인공지능과 예술, 미래 세계와 춤의 융합에 대한 고민을 VR 기술과 춤으로 풀어낸다. 기상천외한 VR 효과는 가상현실과 무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마주할 시간이다. **기간** 2월 24일~26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바다 이야기 목포

1월호 표지를 보자마자 지난해에 다녀온 목포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유달산 풍경,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바다... 매거진 덕분에 추억을 되새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정연두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우리, 모두, 함께, 광

'먼 나라 여행' 기사가 반가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8년 전 광 태교 여행을 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이제는 여덟 살 딸과 함께 셋이서 다시 광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대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출장길에 늘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KTX매거진>. 1월호의 강원도 영월 기사를 보고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곧장 기차를 타고 영월로 갔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내린 눈, 설다리와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박미영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풀빅 헤어 샴푸 & 토닉 세트'(6만 4000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겨울 바다와 관광 열차'

수원민 ©



- 090 한국철도 소식
- 098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0 열차 이용 안내
- 10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NEWS

한 국 철 도 소 식

WWW.KORAIL.COM



순재열 기관사



이국한 기관사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막은 한국철도 기관사

철도 기관사의 발 빠른 대처로 모두의 안전을 지켰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전철 3호선 전동 열차를 운전하던 순재열 기관사가 무악재~독립문역 구간 선로 변에서 불꽃을 발견했다. 순 기관사는 관제실에 화재 발생을 알려 119 출동을 요청한 뒤, 열차 내 안내 방송으로 상황을 전하고 비상 정차했다. 그다음 기관실에 비치된 분말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지점으로 달려갔다. 순 기관사는 불꽃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야 열차를 운행했다. 지난 1월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천안~구로역 구간에서 전동 열차를 운전하던 이국한 기관사가 선로 위 고가도로 방음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은 2미터 너비의 패널을 보고 바로 인근 역에 신고해 조치를 취했다. 사고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기관사 덕에 열차는 오늘도 안전하게 달린다.

1



'KTX 기장 라이언' '승무원 어피치' 키링 굿즈 출시

캐릭터 '라이언'과 '어피치'가 철도 굿즈로 변신했다. 'KTX 기장 라이언' '승무원 어피치' 키링은 2021년 출시해 조기 완판된 굿즈 '역장 라이언' 키링의 후속작으로, 카카오프렌즈의 각 캐릭터가 KTX 기장과 승무원 모습을 하고 있다. 새 굿즈는 전국 기차역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3만 개씩 한정 판매한다. 한 달 만에 품절된 지난 굿즈의 인기를 감안해 제작 수량을 늘렸다. 가격은 1만 9000원이다.

4



한국철도, 설맞이 이웃 나눔 활동

한국철도가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온기를 나눴다. 한국철도 본사를 포함한 전국 한국철도 23개 봉사단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명절 음식과 생필품 등을 지원한 것이다. 물품은 지역사회와 상생 하고자 전통시장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구매했다. 본사가 있는 대전에는 동구청·중구청,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저소득 가정 400세대에 설맞이 명절 키트도 전달했다.

5



안전과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하는 한국철도

한국철도가 지난 1월 대전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차량과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하고, 안전 설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연이은 중대 재해와 철도 사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며 전 직원에게 규정과 절차를 지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2



탄자니아에서 펼친 사회 공헌 활동

한국철도 탄자니아 지사 직원들로 꾸린 봉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현지 모로고로 지역 리나 초등학교에서 교육 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한국철도 직원들의 기부금과 기부 물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해외 물품 조달, 시설 보수 등 방안을 찾은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철도는 탄자니아 아동 보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 내 주요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3



2022년 종합 중대재해예방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가 지난해 12월 대전 사옥 회의실에서 제10차 중대재해 예방협의회를 열고,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2023년 개선 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본 회의회는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책임자 회의다. 나희승 사장을 비롯한 안전총괄본부장 등 전국 소속장 60여 명은 지난해 추진한 약 480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업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6



공공 교통비 지원 사업은 레일플러스

한국철도가 전국 호환 교통 카드 '레일플러스'를 활용해 교통비 지원 사업 플랫폼 마케팅에 나섰다. 23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레일플러스 기반 공공 교통 복지 플랫폼 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비 공공 지원 정책 맞춤형 시스템을 선보인 것이다. 레일플러스를 활용하면 별도 개발 과정 없이 현금 또는 마일리지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신속히 마련해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된다.

7



ALL THAT KORAIL SERVICE

2022 한국철도공사 베스트 서비스

취향저격 관광상품 개발
트렌드 반영 철도여행 '댕댕트레인', '레일&' 출시

- 전세 전용열차(차내 이벤트) 및 반려견 전문 '펫가이더' 동행
- 뉴노멀 트렌드를 반영한 '레일&' 시리즈 출시(①골프/②농촌/③시장)
- 내일로 이용연령 및 이용좌석 확대에 이용편의 증진
(연령확대) 만 25세 → 만 29세, (이용객 증가) '21년 18만명 → '22년 30만명
- 남도해양열차를 활용한 부산권 학생단체 체험강의 상품 개발

'2022년 베스트 서비스 국민 투표' 결과 발표

1위는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을 통한 고객 안전 향상'

한국철도사가 1월 6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한 '2022년 베스트 서비스 국민 투표' 결과를 알렸다. 1위는 열차 내 CCTV 설치와 코레일톡 '범죄 신고' 기능을 메인 화면으로 표출한 것 등 고객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정됐다. 전체 응답자 429명 중 두 번째로 많은 160명에게 선택 받은 서비스는 간편 로그인·결제와 QR코드 검표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도입이다. 세 번째는 외국인과 색각 이상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광역 철도 노선도 디자인 개편이었다. 이 외에도 '댕댕트레인' 등

관광 상품 개발, 병역 의무 복무자 승차권 구매 편의 개선, 짐 배송 서비스 시행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의 여행을 위해 2022년 시행한 총 열 가지 주요 서비스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서비스 개선 성과'에서 확인하자. 설문 조사는 한 해 동안 한국철도사가 제공한 다양한 철도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평가해 이듬해 사업에 이를 반영·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2020년 이래 매해 시행해 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개 모집

철도 현장 적용 시 효과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발 비용(일부 지원), Test-Bed,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	
기술 지원	비용 지원	판로 지원	기술 개발	신뢰성 검증
기술 자문, Test-Bed 제공	공인기관 시험비, 시제품 제작비 등(예산 범위 내)	개발 성공품 우선 구매	기술 개발 수행, 시제품 제작 등	공인기관 인증시험, 현장 테스트 공동 수행 등

대표 사례

주식회사 세화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로 2019년 12월 (개발 기간 12개월) 철도 선로 분기기 연결 간 절연 및 결합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20년 이후 약 20억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



철도 부품 성능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개 모집

접수 기간
2023. 1. 16. 월 ~ 2. 17. 금

참여 방법
win-win.korail.com 철도상생플랫폼
winwinnuri.or.kr 상생누리
※ 위 사이트에서 공고문 확인 후 사업별 신청 서류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사업 문의
042-615-3594
한국철도공사 동반성장처 허경호 차장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암 환자인 아버지께서 당일 수술을 받고 체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호자도 없이 열차를 이용해 퇴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많이 지연되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서울 청량리역 역무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이태원 역무원님은 상황 설명을 들은 후 직접 휠체어를 가지고 내려가 아버지의 상태를 살펴보고, 혼잡한 현장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갑작스레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 무서웠으나, 역무원님의 친절함 응대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감사해하셨습니다. 위급 상황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량리역 이태원 역무원

위중하신 고객님께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 가족이 이곳에서 열차 지연으로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한 행동이었습니다. 고객님께 도움이 되어 저 역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인데 칭찬 글까지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차를 이용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지 알려 주세요.

무궁화호 40주년 기념 굿즈

조립블록 굿즈 출시



상품 구성

조립블록 굿즈 + 열차 승차권

* 굿즈 가격 : 24,200원(승차권 별도)

판매 일정

1월 26일(목) 이후 승차권부터

예약, 수령 가능(평일 편도 한정)

판매처

코레일톡 앱,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상품 수령처

6개 도착역 여행센터

(서울·용산·영등포·강릉·대전·부산 도착역 한정)

구입 방법

- ① 코레일톡 앱 '관광 상품 - 여행 패키지'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여행 상품' 탭에서 승차권 지정 및 굿즈 구입
- ② 승차권의 도착 시각 이후 도착역 여행센터 방문, 굿즈 직접 수령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상품 페이지 바로가기

* 상품 구입 방법, 승차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코레일톡 앱,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VEL NEWS

한 국 철 도 소 식

WWW.KORAIL.COM



옥정호

섬진강 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생겨난 호수로, 맑고 깨끗한 물이 운암대교, 주변 숲과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특히 일교차가 커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봄가을에는 그 풍경이 절정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420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를 건너 옥정호 가운데에 자리한 붕어섬도 둘러본다.



사선대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과 선녀들이 즐겨 놀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봄에는 산개나리와 벚꽃,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 가을에는 붉은 단풍과 낙엽, 겨울에는 하얀 설경으로 계절마다 정취를 흥뻑 느끼게 한다. 공원에는 조각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했다. 수목과 휴식 시설을 잘 갖춰 산책하기도 좋다.

자연과 감성이 함께하는 곳, 전북 임실



임실치즈테마파크

한국 치즈 발상지 임실에서 스위스의 마을 아펜젤을 닮은 이국적 풍경과 만난다. 유럽풍으로 지은 테마파크 안에서 치즈 만들기, 치즈돈가스 시식 등 치즈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한다. 치즈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는 이곳이 유일하다. 10월에는 임실N치즈 축제, 12월에는 임실 산타 축제가 열려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수의견관광지, 오수의견비

반려동물과 함께 떠날 여행지를 찾는 이에게 추천한다. 자신의 몸을 던져 들로부터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의견' 이야기가 전하는 곳으로, 반려견 심터와 놀이터, 산책로, 훈련장을 마련해 반려동물 동반 가족에게 사랑받는 장소다. 오수면 원동산공원에는 의로운 개를 기리는 의견비도 세웠다.



임실 당일 버스 투어

임실의 주요 여행지를 버스 투어로 하루 만에!

한국철도 전북권 여행센터가 2월 '임실 당일 버스 투어' 상품을 출시한다. 왕복 KTX 승차권과 투어 버스, 점심 식사(임실 치즈돈가스), 체험, 카페 음료까지 포함한 상품은 임실의 주요 여행지를 하루 만에 둘러보도록 계획했다. 아름다운 동화 나라 같은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소하고 담백한 임실N치즈를 넣은 임실 치즈돈가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옥정호와 붕어섬에 단번에 닿는 옥정호 출렁다리, 옥정호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 '옥평가든'까지 알차게 꾸렸다. 즐길 거리 넘치는 임실군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자. 투어 소요 시간은 약 8시간이며, 15명 이상 예약할 시 출발한다. 여행 3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KTX + 렌터카로 즐기는 임실 여행



왕복 열차(KTX) + 렌터카(24시간) 연계 자유 여행 상품!

왕복 KTX 승차권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렌터카도 할인받는 합리적인 임실 자유 여행 상품이 출시된다. 전주역까지 KTX로 이동한 뒤, 역 앞에서 렌터카를 받아 출발하는 편리한 상품이다. 차량은 레이나 아반떼급 준중형 세단, 소나타, 그랜저 중에서 선택한다. 24시간 대여하며, 자동차보험과 딜리버리 서비스가 가격에 모두 포함된다. 단, 상품 할인은 렌터카 반납 시 임실군 여행지 사진 두 곳과 임실군 식당 한 곳 이용 영수증을 제시해야 적용된다. 여행 상품 예약은 출발일 기준 한 달 전부터 3일 전까지 가능하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또는 익산역 코레일 전북권 여행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다.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
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한 N카드를 적용하면 기본 15퍼센트부터 열차별 잔여석에 따라 40퍼센트까지(ITX-청춘은 30퍼센트까지) 승차권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할인 카드입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더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 CU, emart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emart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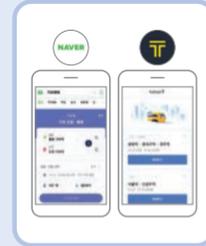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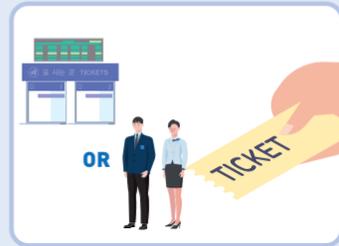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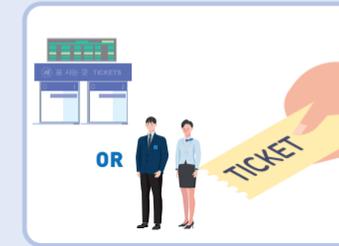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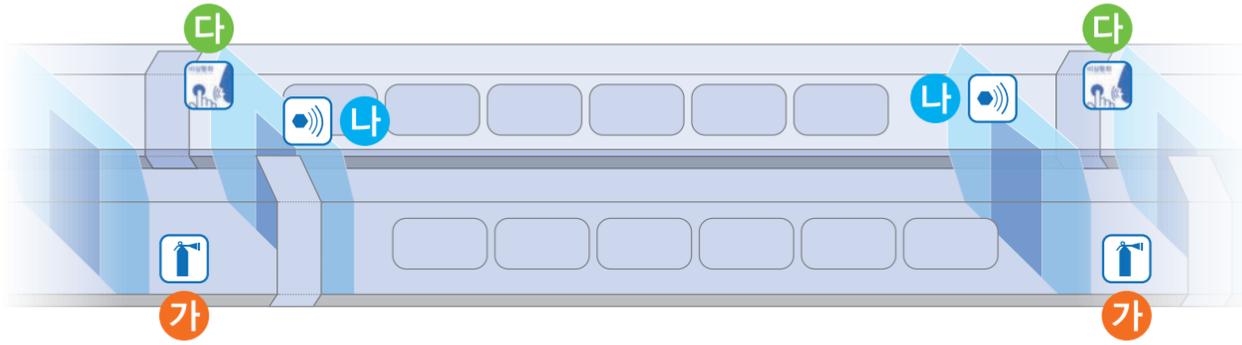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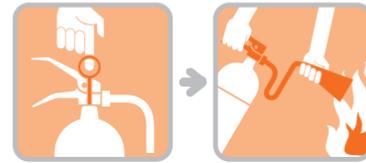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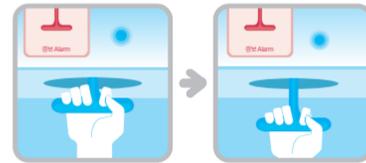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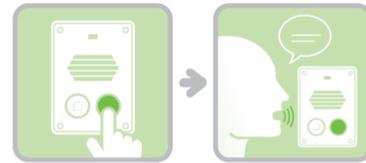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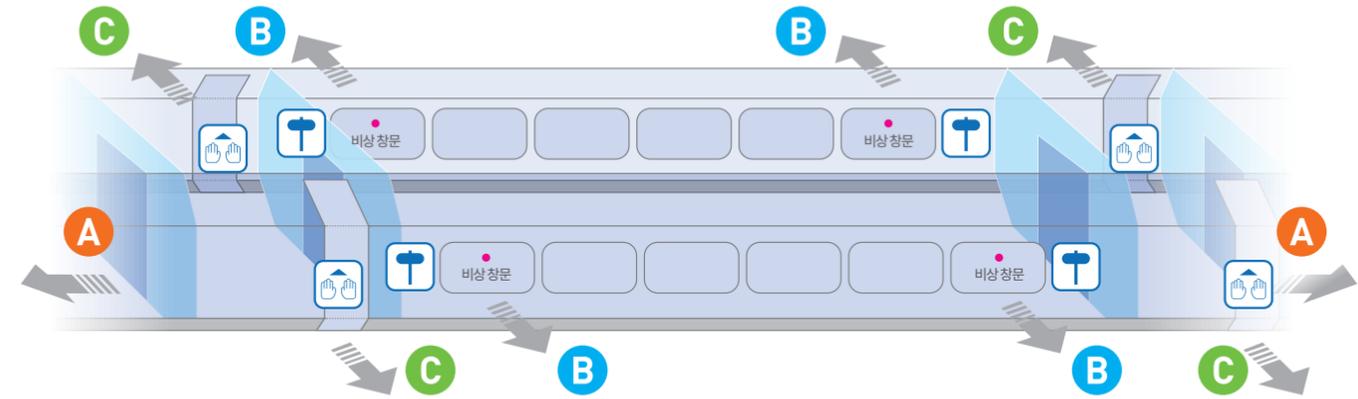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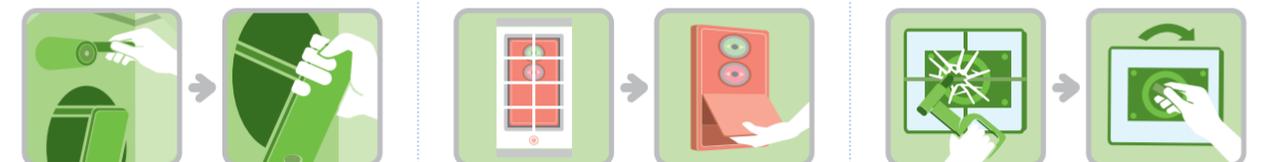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운수 좋은 날

누구나 그렇듯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운을 점치곤 한다. 마감이라 출근했던 일요일, 가까운 이가 코로나19에 걸려 집에서 40분 걸어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고 버스를 기다렸다. 대기 시간 12분. 오늘 운은 별로인가. 버스가 왔을 때 내 앞의 덩치 큰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나 보다. 기사님이 "마스크 하고 타세요!" 외치셨고 손님이 비켜나자 바로 출발하셨다. 응? 다음 버스는 15분 뒤... 오늘 운 진짜 별로인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 문득 아이 목소리가 들린다. 귀여운 존재가 다가오는 느낌. 오아아악, 동하였다! 울 정운 디자이너의 아들내미 동하! 세상 귀여움을 뽐낼 땀진 생명체가 인사하고 애기하고 수수께끼를 낸다. 태어나자마자 귀엽더니 7년째 계속 귀엽다. 오늘 운 최고구나, 동하도 보고. 버스 좀 기다리면 어때요. 동하를 만나고 이 잡지도 만들고 있는걸요. 이런 운 좋은 사람. **김현정**

비바나폴리·델리시스·봉이밥·치앙마곡·로퍼스

뭐든 무조건 맛있기만 해서, 음식 기사를 쓸 때는 머리가 복잡하다. 아는 표현 또한 '맛있다'가 전부인 변변찮은 어휘력 때문에 난감. 이번 '맛집 탐방' 취재에서도 그랬다. 맛을 즐기고만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맛있는 까닭을 대표님께 거듭 여쭙야 했다. 컴컴한 명숙에서 꿩이질하는 기본이랄까. 근데 답변마다 원석이다. 맹탕인 질문에 진국같이 설명해 주신 대표님들, 복이 함박눈처럼 쏟아질 거예요! 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맛깔난 메뉴를 선보이는 다섯 식당 중 '봉이밥' 실장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저희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요. 맛을 연구하고 손님 말씀을 메뉴에 반영하죠. 다음에 오시면 조금이라도 분명히 더 맛있을 거예요." '맛있다' 표현이 이리 맛있을 수가. 지면이 한정돼 담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 방문해 보시길 바라요. 맛에 진심인 from **김규보**

업로드보다 업데이트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KTX매거진>을 3회독 하고 나면 포털 사이트 무료 영화 목록을 찾아보곤 한다. 지난주 나주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그랬다. 목록에서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낯선 제목의 작품이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프닝 크레딧이 올라가고 5분 정도가 흘러서야 상영관에서 본 영화란 사실을 깨달았다. 아, 그간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달콤한 선물이야 생각해 왔다. 오래되거나 필요 없는 파일을 스스로 정리하는 메모리 카드라니 얼마나 획기적인가. 다만 조금 두렵다. 비슷한 상황이 여행이나 취재를 하면서도 벌어질까 봐. 전남 강진에 다녀왔다. 8년 만에 찾은 강진을 다시 둘러보고, 추억을 덧칠했다. 그러고는, 업로드보다 업데이트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사진은 강진 가는 길에 본 월출산이다. **강은주**



잊지 못할 거예요

1. 두근두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나 멀리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이륙. 비행기 창문에 붙어서 하늘을 구경하다가 잠들었더니 타이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저를 깨우더군요. "우아, 외국이네."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을 첫 해외 출장입니다. 끄라비의 바다가 아름답다길래 얼마나 아름다울까 했건만 이 정도일 줄은, 타이 음식이 맛있어서 얼마나 맛있을까 했는데 이렇게나 맛있을 줄은! 신나서 속으로 춤을 백번 쳤습니다. 취재하는 내내 영화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OST 'Con La Brisa'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며 '먼 나라 여행' 기사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환적인 멜로디와 끄라비의 자연이 딱 들어맞습니다.
2. 정 많은 우리 아빠, 많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남혜림**

Puzzle

83쪽 초성 퀴즈 정답: 바다



제품 구매 기간 | 2023년 2월 8일(수)~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온라인 참가 접수 일정 | 2023년 2월 14일(화)~2월 18일(토)

지원 방법 | 트루라이프 홈페이지 (www.trulife.co.kr)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내일부터
갓생을 살거야

MASTER CHALLENGE SEASON 15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 시즌 15

건강한 생활 습관,
트루헬스 마스터 챌린지15와
함께 실천하세요!



* 자세한 모집요강은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정과 세부사항은 주최/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 및 상세 운영안은 추후 트루라이프 홈페이지 공지 예정

바로 지금, 여행

KTX

대전

광고 문의 02-799-9175



대천 산책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든 풍경